

## 코로나19 관련 해외시장 주간 동향 보고

(2021.2.16 기준)

### <중국>

- 중국 내 백신 접종 4,052만 회분 완료(2.9)
  - \* 베이징 순의구위생건강위원회, 27일부터 18세 이상 60세 이하 주민 대상 코로나 백신 접종 무료 실시
  - \* 베이징 왕징지역, 전체 주민 대상(외국인 포함) 코로나 백신 무료 접종 신청 접수 중 (2.8)
  - \* 백신 2회 접종이 원칙으로 약 2,000만명 접종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당초 중국이 예상했던 춘절(2.11~2.17) 전 5,000만 명 접종 예정보다 느린 속도
  - \* 베이징 각 구 백신 접종소 운영(2.10) 및 춘제기간 임시 백신접종소 등 운영, 백신 접종 지속(2.15)
- 해외 역유입 우려에 따른 외국인 입국 금지 확대 및 국제 항공편 방역 강화 지속
  - \* 중국-영국 항공편 지속 운항 중단(1.10~)
  - \* 민항국 통계 2020년 말 기준 중국 국내선 항공편은 코로나19전 81%수준, 국제선 및 홍콩, 마카오, 대만 항공편은 각각 32% 및 41% 수준으로 회복, 여객 2억4천만 명 감소(1.22)
  - \* 주 캐나다 중국 대사관, 캐나다 출발 외국인 입국 금지 발표(1.30)
-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및 봉쇄 조치 현황
  - \* 허베이성 랑팡시 구안현은 1.25일까지 봉쇄식 관리 유지하고, 그 외 랑팡시 지역은 1.8일까지 봉쇄 관리후 해제. 봉쇄 해제후 베이징 통근자들은 72시간 내 핵산검사 음성증명서 소지 필요하고, 이후 14일마다 재검사 필요
  - \* 허베이성 룡야오현 주민 자가격리, 지린성 공주링시 주민 자가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1.18)
  - \* 허베이성, 헤이룽장성, 지린성 중심으로 코로나19 신규 일주일 연속 100명 이상 발생(1.19)
  - \* 상하이 지역사회 감염자 발생(1.21)(2021년 최초 발생), 상하이 성황묘 개방 중단(1.24~)
  - \* 허베이성 스좌팡 2.3부터 3주 만에 봉쇄 해제, 중고위험 지역 거주자 제외 출퇴근 재개(2.3)
  - \* 베이징시 상무국, 식당 모임 가이드라인 발표. 식사시간은 2시간 이내, 참석 인원수 10명 이하 권고
  - \* 베이징시 춘절 공공장소 감염 예방 지침 발표. 영화관 좌석 착석률 50% 이하(2.4)
  - \* 베이징 내 대학교 개학 연기 발표. 북경대, 중앙재경대, 인민대 등 3월 중순까지 개학 연기(2.7)
  - \* 중국 전역 중·고위험지역 총 8개로 한 자리 수 대로 감소 (2.15)
  - \* 중국 전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9명(해외유입 8, 본토 1) 발생(2.15)
- 중국 국내 항공편 구입시 PCR 검사 할인쿠폰 제공 이벤트 실시(2.10)
  - \* 온라인 여행 플랫폼 페이주와 쓰촨항공, 아리헬스 공동 춘제 맞이 2.9~3.8 기간 중 쓰촨항공 중국 내 항공편 구입시 3.31일까지 사용가능한 PCR 검사 79위안 할인권 제공

## <대만 · 홍콩>

- (대만) 대만 교육부, 외국인 유학생 입경 재개 보도(2.10)
  - 대만 보건당국의 사전 동의하에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유학생의 검역 및 입경절차와 관련한 내용 각 대학으로 공문 발송
- (대만) 대만 위생복지부, 중국 백신 도입 가능성 배제 의사 표명(2.15)
  - 중국 백신의 기술적, 과학적 자료 및 문헌 등이 부족하여 도입 어려움 밝힘
- (홍콩) 홍콩정부, 홍콩 시민권자는 중국 국민으로 간주, 이중 국적(영국 등)에 대한 영사 보호 불가 발표
- (홍콩) 코로나19 확산 안정 시 2.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가능성 발표
  - 공공모임 4인까지 허용, 저녁 10시까지 식당 내 취식 가능, 헬스장 등 다중 이용시설 운영 재개 등
  - \* 현재 공공모임 2인 이상 모임 금지, 저녁 6시 이후 식당 내 취식금지, 노래방·헬스장 등 위험시설 운영중단 중 (‘20.12.10.~’21.2.17)

## <일본>

- 후생노동성, 美 화이자 백신 제조·판매 특례 승인(2.14)
  - 정부, 2.17일 이후 의료종사자 1만 여명 대상 백신 우선 접종 추진
  - \* 화이자 백신 40만회 접종분 나리타 공항을 통해 이송 완료(2.12)
  - \* 의료종사자 및 고령자 대상 우선 접종은 화이자 백신으로 통일하여 실시
  - 백신 접종에 대한 기대로 스가 내각 지지율 34% 기록(전월 대비 1% 상승)
- 코로나19 신규 감염자수, 8일 연속으로 2,000명 이하 기록(2.7~2.14)
  - 도쿄 도내 감염자수, 주간 1일 평균 감염자수 380명으로 전주 대비 66.4% 수준
- 후쿠시마 규모 7.3 지진, 방역에 유의하여 지역 주민 피난
  - 피난자 텐트 사이 거리두기, 체온측정 및 소독 등에 유의하여 피난소 운영
  - \* 미야기·후쿠시마 등 258명 피난소 동시 이용
- 긴급사태선언 시행 중(2.2~3.7)
  - 2.2일부 10개 지역(도쿄, 카나가와, 치바, 사이타마, 아이치, 기후, 오사카, 교토, 효고, 후쿠오카) 대상 1개월 연장 방침
  - 수도권 등에서는 의료붕괴 위험이 지속되는 상태
  - 긴급사태선언 대상 외 지자체, 독자적 영업시간 단축 연장(후쿠시마 등 7개 현)
  - 비즈니스 트랙 포함 외국인 신규 입국 중단 조치도 3.7일까지 연장

## <동남아중동>

- (태국) 보건당국,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검증이 완전하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 세계보건기구(WHO)의 전세계적 코로나19 백신 여권 도입 주장 반대(2.8)
- (인도) 러시아와의 에어버블 협약 체결(2.12)
  - 해당 협약 체결로 비자 보유자의 양국간 입국 허용. 단, 관광 목적 방문자 제외
  - \* 현재 총 25개국과 에어버블 협약 체결(20.7월) :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캐나다, UAE, 카타르, 몰디브, 일본, 바레인, 나이지리아, 이라크, 아프카니스탄, 부탄, 케냐, 오만, 우크라이나, 방글라데시, 네덜란드, 탄자니아, 르완다, 에티오피아, 쿠웨이트, 네팔, 러시아
- (몽골) 국가비상대책위원회, 통행금지 기간 동안 울란바토르 지역 대상 1가구 1인 코로나19 검사 실시(2.11~2.13), 검사 거부 시 벌금 부과
- (터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발생 국가발 항공기 운항 금지 연장
- (알마티) 코로나19 예방 비상대책위원회, 국제선 운항 확대 결정(2.9)
  - \* 러시아(주3회→10회), 몰디브(주4회→7회), 키르기스스탄(주2회→3회), 우즈베키스탄(주6회→7회), 우크라이나(주1회→2회)
- (베트남) 당초 14일에서 21일로 확대했던 입국자 격리기간 14일로 다시 축소
- (싱가포르) 코로나19 TF팀, 한 달간의 시범기간을 걸쳐 2.22일부터 70세 이상 노인 대상으로 백신 접종 시작 예정
- (말련) 보건부, 화이자와 말레이시아 전체 인구의 50%가 접종 가능한 분량의 백신 추가 공급 협상 중(2.10)
- (필리핀) 보건부, 자국 거주 외국인 대상 백신 접종 방안 검토 중(2.10)
  - 자국민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필리핀 거주 외국인에게도 무료 백신 접종 추진할 계획

## <구미대양주>

- (미국) 질병관리센터(CDC), 백신 접종완료 2주 후부터 최대 3개월 간 확진자 접촉시에도 격리면제 가능 발표(2.10)
- (미국) 델타항공, 플라이 델타(Fly Delta) 앱 내 디지털 컨시어지 서비스 제공
  - 항공편 예약, 코로나19 검사 일정 확인, 필수 구비 서류 검증, 목적지별 여행 규정 및 권고사항 정보 공유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 (호주) 연방정부, 3.17일 종료되는 해외여행금지 조치 연장 여부 검토 중(3개월 마다 연장여부 검토)이며 6월까지 재연장 가능성 높음
- (캐나다) 해외 입국객 대상 입국 제한 조치 강화
  - 모든 항공 입국객 대상 2.22일부 도착시 PCR 검사 및 공항 인근 호텔에서 3일간 자가격리 의무화

- 육로 입국 비필수 여행객 대상 2.15일부 입국 전 72시간 내 발급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음성확인서 미소지자에 대한 법적 입국거부는 불가하나, 미제출시 최대 3천불 벌금 부과)
- (영국) 세계여행관광협회(WTTC) 제20회 Global Summit, 개최 시기 4월로 한 달 연기
  - 4.25~4.27 3일간 멕시코 칸쿤에서 온라인으로도 참여 가능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 예정
- (영국) 영국발 방한노선 입국 제한 2주 추가연기(~2.25)
- (러시아) 자체 개발 백신 스푸트니크 V(Sputnik V), 유럽의약품청(EMA)에 등록 신청(1.29)
- (러시아) 러시아 철도 및 항공운항 재개 국가 및 일정 발표
  - \* 러시아-벨라루스 간 철도 운행 재개(2.8)
  - \*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항공운항 재개(2.15)
  - \* 극동 하바롭스크 국제 노선 공식 개항(2.8). 4월 중 터키 국제노선이 재개될 예정
  - \* 기존 재개한 카자흐스탄(누르술탄), 벨라루스(민스크), 이집트(카이로) 항공편 증편 계획 중
  - \* 러시아-인도 에어버블 협정에 따라 2.12일부 국제선 재개 예정 : 단 일반 관광객 제외 비자 보유자만 이용 가능

※ [참고] 각국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현황 (외교부, 2.16 10시)

□ 총 174개 국가·지역

구분	국가·지역수
입국금지	53개국 *중국 : (공통)기존 비자, 거류허가증 소지자 입국 잠정 중단 (30개 성·시)각 지역 별도 방침 있음
격리조치	11개국(전주대비 +1)
검역강화 및 권고	110개국(전주대비 -1)

\* 입국제한 해제 : 13개 국가·지역

※ 참고자료

1. 국가별 관광재개 현황
2. 국가별 항공/페리 동향
3. 각국의 한국 여행 금지·자제 관련 조치현황
4. 한국의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현황
5. 국가별 코로나19 백신 관련 현황. 끝.

**참고1**

**국가별 관광재개 현황 [2.16 기준]**

○ 국가별 현황

국가	내 용	
중국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이징(4.17)·상하이(3.30)·산둥(3.31)·산시(陝西)(3.16)·장쑤(3.23)·광둥(5.15) 등 지역 省·시내 여행 한해 영업 재개</li> <li>○ 여행사 영업 재개 관련 문화여유부 및 지역 문화여유청 등 관련 부서 통지 후 가능</li> <li>○ 중국대륙 주민의 마카오 입국 시 검역단계 하향조정 자기격리 면제(7.14)</li> <li>○ 감염병 관리 우수 지역의 성(省)간 단체상품 판매 및 운영 허가(7.14)</li> </ul>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콩 비거주자(non-resident) 입국 금지(추후 통지시까지 계속 시행)                      ※ 단, 중국·마카오·대만에서 14일 거주 후 입국시 비거주자 입국가능</li> <li>○ 홍콩-싱가포르 트래블버블 합의(2020.10.15)                      * 시설격리·자기격리 해제, 여행목적이나 일정에 제한 없음</li> <li>○ 코로나 재확산으로 홍콩-싱가포르 트래블버블 잠정 중단(2020.11.21)                      ※ 트래블 버블 재개 일정 미정</li> </ul>
홍콩	아웃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국자 격리조치 시행으로 아웃바운드 중단( ~3.31.까지 시행)                      * 중국·마카오·대만에서 입국 시 14일 자가/호텔 격리                      * 중국·마카오·대만 외 지역에서 입국 시 21일 호텔 격리</li> </ul>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역관광) 5.27-8.3, 관광산업 종사자(5만명) 방역수칙 준수 현장답사</li> <li>○ (안심관광) 7.1-10.31, 일반국민 대상 국내관광 바우처 지급</li> <li>○ 관광국, 국제관광 관련 예산(한화 400억원) 안심관광 지원금으로 추가 투입(8.28)</li> </ul>
대만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관광객 유치) 국경통제 완화, 환승금지 해제 등</li> </ul>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관광활성화 「Go To 캠페인」 1조 6,794억엔 추경 예산 편성( '20.4.7)</li> <li>○ 관광청, 「Go to 트래블」 캠페인 7월 22일부터 개시                      * 제외되었던 도쿄, 정식대상으로 추가 ( '20.10.1~)</li> <li>○ 오사카부, 삿포로시 등 코로나19 급증지역 「Go To 트래블」 캠페인 일시정지 기간 연장 ( '20.12.14)</li> <li>○ 「Go To 트래블」 캠페인 전국 일시정지 실시( '20.12.28~ '21.1.11)                      * 도쿄도( '20.12.18~), 나고야시(20.12.16~), 히로시마(20.12.24~)은 선행하여 정지 실시                      * 기구매건 취소 수수료 면제, 사업자 대상 여행 대금 50% 보상 방침</li> <li>○ 「Go To 이벤트」, 「Go To 상점가」 캠페인 일시중지 (20.12.28~ '21.1.11)</li> <li>○ 비즈니스 트랙 포함 외국인 신규 입국 중단 조치 3.7일까지 연장( '21.2.2-3.7)</li> <li>○ 긴급사태선언 발령에 따른 「Go To 트래블」 중단기간 연장( '21.1.12-3.7)</li> </ul>
일본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관광 1억 명 목표 수립( '20.5.18)</li> <li>○ 내각, 224억 바트(7.2억 달러) 규모 국내관광산업 부양책 승인( '20.6.17)                      - 주요내용 : △국내관광 지원(180억 바트, 5.8억 달러) △의료진 및 보건 봉사자 휴일여행 지원(24억 바트, 0.8억 달러) △국내항공운임 지원(20억 바트, 0.6억달러)</li> <li>○ 내각, 「We travel together」, 「Moral Support」 계획 발표( '20.7.1)</li> <li>○ 국내관광 진흥 프로그램 「We Travel Together」 시행 첫날 190만 명의 국민이 온라인 등록 ( '20.7.17)</li> <li>○ 국내관광 진흥 프로그램 「We Travel Together」 으로 호텔 객실 예약 수 360만개 도달 ( '20.7.21)</li> <li>○ 태국관광청 5개 지역 안전 여행루트 공개</li> <li>○ 국내관광 진흥책 「We Travel Together」 의 혜택 확대 방안 승인( '20.8.27)</li> <li>○ 관광청, 태국 거주 외국인(18만 명) 여행 장려를 위해 1인당 500바트 지원( '20.9-11월) 준비</li> <li>○ 관광청, 타이항공·태국호텔협회·태국 여행사협회와 공동으로 국내여행 패키지 마련 및 외국인 대상 관광 보조금 제공 지원 계획( '20.10.30)</li> <li>○ 관광청, We Travel Together 캠페인 내년 송크란까지 연장·확대 예정</li> </ul>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월부터 국제선 운항 일부 재개</li> <li>○ 자부담으로 격리에 동의하는 특정 외국인 입국 허용                      * 노동자가 외국인/배우자/자녀, 태국인의 외국인 배우자/자녀, 거주 허가 외국인, 질병 치료가 필요한 외국인/보호자, 외국인 학생/학부모, △정부 초청인/해외 투자자/전문 기술자</li> <li>○ 해외 의료관광객 대상 가이드라인 발표</li> <li>○ 경제 부흥을 위한 4개 유형*의 외국인 입국 허용 추진                      * 박람회 참가 외국인, 영화 촬영팀, 의료관광객, Thailand Elite Card 가입자</li> <li>○ 정부, 국가 개방안 승인. 외국인 관광객 특별관광비자(Special Tourist Visa) 발급, 최장 9개월(270일) 태국 체류 가능( '20.9.15)</li> </ul>
태국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관광 1억 명 목표 수립( '20.5.18)</li> <li>○ 내각, 224억 바트(7.2억 달러) 규모 국내관광산업 부양책 승인( '20.6.17)                      - 주요내용 : △국내관광 지원(180억 바트, 5.8억 달러) △의료진 및 보건 봉사자 휴일여행 지원(24억 바트, 0.8억 달러) △국내항공운임 지원(20억 바트, 0.6억달러)</li> <li>○ 내각, 「We travel together」, 「Moral Support」 계획 발표( '20.7.1)</li> <li>○ 국내관광 진흥 프로그램 「We Travel Together」 시행 첫날 190만 명의 국민이 온라인 등록 ( '20.7.17)</li> <li>○ 국내관광 진흥 프로그램 「We Travel Together」 으로 호텔 객실 예약 수 360만개 도달 ( '20.7.21)</li> <li>○ 태국관광청 5개 지역 안전 여행루트 공개</li> <li>○ 국내관광 진흥책 「We Travel Together」 의 혜택 확대 방안 승인( '20.8.27)</li> <li>○ 관광청, 태국 거주 외국인(18만 명) 여행 장려를 위해 1인당 500바트 지원( '20.9-11월) 준비</li> <li>○ 관광청, 타이항공·태국호텔협회·태국 여행사협회와 공동으로 국내여행 패키지 마련 및 외국인 대상 관광 보조금 제공 지원 계획( '20.10.30)</li> <li>○ 관광청, We Travel Together 캠페인 내년 송크란까지 연장·확대 예정</li> </ul>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월부터 국제선 운항 일부 재개</li> <li>○ 자부담으로 격리에 동의하는 특정 외국인 입국 허용                      * 노동자가 외국인/배우자/자녀, 태국인의 외국인 배우자/자녀, 거주 허가 외국인, 질병 치료가 필요한 외국인/보호자, 외국인 학생/학부모, △정부 초청인/해외 투자자/전문 기술자</li> <li>○ 해외 의료관광객 대상 가이드라인 발표</li> <li>○ 경제 부흥을 위한 4개 유형*의 외국인 입국 허용 추진                      * 박람회 참가 외국인, 영화 촬영팀, 의료관광객, Thailand Elite Card 가입자</li> <li>○ 정부, 국가 개방안 승인. 외국인 관광객 특별관광비자(Special Tourist Visa) 발급, 최장 9개월(270일) 태국 체류 가능( '20.9.1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초 검토되었던 푸켓 모델(Safe&amp;Sealed)은 지역주민 반발로 폐기</li> <li>○ 특별관광비자(STV) 정책에 의거 10.1부터 장기체류 외국인 관광객 입국자 수 매주 300명씩 허용( '20.9.28)</li> <li>○ 내무부, 보건부와 관계기관에서 승인한 장기체류 희망 외국인 관광객 대상 태국 입국을 허용을 관보에 게재( '20.9.30)</li> <li>○ 특별관광비자를 통한 첫 외국인 관광객 그룹 10.20, 10.26, 11.1일 입국 예정</li> <li>○ 특별관광비자(STV)를 통한 첫 번째 관광객 그룹 입국( '20.10.20)</li> <li>* 10.20일(상하이 49명), 10.26일(광저우 145명) 입국, 14일간 격리 필요</li> <li>○ 코로나-19 상황운영센터, 특별관광비자로 입국 가능한 저위험 14개 국가 명단 발표( '20.10.21)</li> <li>*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위스, 일본, 한국, 호주, 싱가포르, 뉴질랜드</li> <li>○ 국가전염병위원회, 코로나-19 격리기간 14일에서 10일로 4일 단축하는 방안 승인(10.29)</li> <li>○ 태국관광청, 타이항공/태국호텔협회/태국여행사협회와 공동 특별관광비자(STV)로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Amazing Thailand Plus Package' 웹사이트 출시( '20.10.30)</li> <li>* 비자, 항공, 격리호텔, 격리 후 관광계획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여행비용 지원 등</li> <li>○ 태국 관광체육부, 중국과 트래블버블 추진( '20.11.6)</li> <li>○ 태국 관광체육부·공중보건부, 한국, 일본, 중국, 대만 4개 국가에 우선적으로 골프장 격리 허용 검토( '20.11.11)</li> <li>* 웰니스 격리(Wellness Quarantine) : 골프장, 스파샵 등 이동 범위가 제한된 구역 내에서 건강관리를 받으며 14일간 격리기간을 보낼 수 있는 조치임</li> <li>○ 태국 정부, 중국과의 트래블버블 체결 연기( '20.11.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내 코로나 확산(11월) 영향으로 태국정부는 중국과의 트래블버블 시행을 내년 여름 시즌까지 연기 후 다시 논의할 예정</li> </ul> </li> <li>○ 관광 목적의 한국인, 비자 없이 태국 입국 가능( '20.12.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3.11이후 중단되었던 무시증 제도를 여행목적의 경우 한국 포함 56개국 대상으로 재개. 14일간 격리조치, 입국허가서(CoE),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보험 등의 자참요건은 유지.</li> </ul> </li> <li>○ 숙박시설을 갖춘 골프리조트를 격리시설로 지정(6곳), 골프시설을 이용하면서 격리하는 골프장 격리 투어 제도 도입</li> </ul>
싱가포르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6.1일 이후 국내 이동제한 해제 3단계 계획 발표</li> <li>○ 박물관, 동물원 등 국내 관광지 영업 재개</li> <li>○ 싱가포르 관광청(STB), 7.3일부터 호텔 Staycation을 위한 영업재개 승인 시작</li> <li>○ 싱가포르 관광청(STB), Enterprise Singapore 및 센토사개발조합과 9개월 동안 4천5백만 달러 규모의 국내관광활성화 캠페인 실시</li> <li>○ SingaporeRediscovered Vouchers(S\$100) 배포계획 등 세부사항 발표( '20.9.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세 이상 국민에게 올 12월 배포 예정, 내년 6월까지 유효</li> </ul> </li> <li>○ '20.9.18일부터 싱가포르 관광지 수용인원의 허용범위 확대(23%~50%, 야외 행사의 경우 50명~250명 미만)</li> </ul>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0.8일부터 베트남·호주 기업관계자 등 필수인력 대상 입국 허용</li> <li>* 입국 허용 국가 : 뉴질랜드, 브루나이, 베트남, 호주</li> <li>○ 정부, 홍콩과 트래블버블 합의( '20.1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격리·자가격리 해제. 여행목적이나 일정에 제한 없음</li> </ul> </li> <li>○ 중국·호주 빅토리아 주와 Air Travel Pass(싱가포르 입국만 허용) 실시</li> <li>○ 14일 이내 호주(New South Wales)·영국 방문이력이 있는 여행객은 '20.12.24일부터 싱가포르 입국 및 환승 금지, 사전에 입국승인을 받은 여행객에도 해당</li> </ul>
말레이시아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복단계의 이동제한명령(Recovery Movement Control Order, '20.6.10-8.31) 발표와 함께 코로나-19 위험지역을 제외한 국내관광 전면 허용( '20.6.7)</li> <li>○ 7월부터 테마파크/워터파크 영업 허가( '20.6.30)</li> <li>○ 문화관광예술부, 국내여행활성화 캠페인 '큐티큐티 말레이시아' 실시 및 홍보를 위한 5개 TV 광고 런칭( '20.8.26)</li> </ul>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10일부터 말련-싱가포르 상용 및 공무 출장자 자유롭게 입출국 가능한 Green Lane 실시( '20.7.15)</li> <li>○ 정부, 2021년 2분기까지 외래관광객 입국 금지 가능성 언급. 각국 코로나-19 2-3차 팬데믹에 따라 Green Lane 도입 재검토</li> <li>○ 인도네시아와 Green Lane 협상 타결, 양국 관광객 상호 왕래 합의( '21.2.6)</li> </ul>
베트남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Vietnamese People Travel in Vietnam 캠페인( '20.6.1~연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공권, 호텔, 입장료 할인 등</li> </ul> </li> <li>○ 하노이 시, "safe-friendly-quality-attractive" 캠페인 추진</li> <li>○ 다낭 시, "Danang Thank you" 캠페인 추진</li> <li>○ 대부분 국내선 운항 재개( '20.6.4)</li> <li>○ 철도청, 휴가철 탑승권 4,600장 50% 할인 판매( '20.6.22~7.8)</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트남항공, 7.22일 이후로 국내선 총 6개 노선 운영 계획. 국내 관광활성화 일환으로 할인 프로모션 진행</li> <li>○ 베트남·호치민-다낭 국내선 항공 운항 재개( '20.9.10)</li> </ul>
인도 네시아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여객운송 제한 완화 : 50% → 70%</li> <li>○ 호텔업계, '20.7월부터 운영재개 계획 발표</li> <li>○ 발리, 국내관광 허용(7월말) 계획 발표</li> <li>○ 2단계 국내관광객 개방 발표( '20.7.31)</li> <li>○ 자카르타 주정부, 자카르타 진출입시 신속항원검사 강제</li> <li>○ 자바 및 발리섬, '21.2.8일까지 지역 활동제한조치 시행</li> </ul>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8.17일 한-인니 비즈니스 출장 신속입국(Fast Track) 시행</li> <li>○ 싱가포르-인니 비땀·빈딕섬 한정 출입 허용하는 코로나 통로(Corona Corridor) 시행</li> <li>○ 외국인 대상 '21.2.8일까지 입국 금지 조치 시행</li> <li>○ 말레이시아와 Green Lane 협상 타결( '21.2.6), 양국 관광객 상호 왕래 협의</li> </ul>
필리핀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6.2일부터 국내선 운항 재개(필리핀항공, 에어아시아, 세부퍼시픽)</li> <li>○ 팔라완섬 옐니도 국내관광 재개</li> <li>○ 국내선 항공 정상화를 위한 코로나-19 항원 속성검사 의무화 채택 예정</li> <li>○ '20.10.1일 보라카이섬 국내관광 재개(72시간 내 음성확인서 의무제출)</li> <li>○ 지역사회 여행업 영업 재개 허용, 정원의 50% 이내 운영가능</li> </ul>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2.26일부터 은퇴비자·유료비자(2020.3.20 이전) 소지 외국인의 입국 허용 등 외국인 대상 필리핀 입국 금지조치 완화</li> </ul>
인도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5.25일부터 국내선 운항 재개</li> <li>○ '20.7.6일부터 전국 주요 유적지(타지마할 제외) 재개방 발표</li> <li>○ 관광부장관, 국내여행 활성화에 집중한 정책을 펼칠 예정임을 발표( '20.8.27)</li> </ul>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글라데시와 에어버블 체결 예정, 10.28일부터 인도-방글라데시 항공 재개</li> <li>○ '21.1.19일 기준 24개국과 에어버블 체결</li> <li>○ '21.2.15일 기준 25개국과 에어버블 체결</li> <li>*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캐나다, UAE, 카타르, 몰디브, 일본, 바레인, 나이지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부탄, 케냐, 오만, 우크라이나, 방글라데시, 네덜란드, 탄자니아, 르완다, 에티오피아, 쿠웨이트, 네팔, 러시아</li> </ul>
UAE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변, 호텔 등 Staycation을 중심으로 제한된 국내관광 허용</li> <li>○ 쇼핑몰, 관광지 운영 재개</li> <li>○ 국내 관광 재개의 신호탄으로 'Go Safe Certification*' 출범</li> <li>* 호텔, 쇼핑몰, 레스토랑, 관광 명소 등 대상 안전·청결 인증 제도</li> </ul>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7.7일부터 두바이 인바운드 관광 재개</li> <li>○ 두바이, 해외 의료관광 마케팅 재개('20년 50만명 유치 목표)</li> <li>○ '20.8.5일부터 한-UAE 간 신속 입국(Fast Track) 제도 시행</li> <li>○ 아부다비 긴급재난위원회, 아부다비 입국 허용 조건 승인, '20.8.27일부터 시행</li> <li>○ '20.12.24일부터 아부다비 인바운드 관광 재개, 관광객 입국 허용</li> </ul>
터키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5.28일부터 국내관광 재개</li> <li>○ 터키 내 14개 도시간 항공 운항 재개(6.18) 계획 발표( '20.6.2)</li> <li>○ 문화관광부, 7.1일부터 모든 관광시설 영업 재개( '20.6.11)</li> </ul>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월 중순부터 국제관광 재개</li> <li>○ 유럽 6개국(6개도시) 항공 운항 재개(6.18) 발표( '20.6.2)</li> <li>○ 9개국 36도시로부터 전세기 입학 시작(7월 1주차 우크라이나-발 전세기 탑승객 1만 명 입국)</li> <li>○ 터키 안탈리아에 일 1만 명 외래관광객 도착( '20.7.20)</li> </ul>
카자흐스탄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5.18일부터 여행사 영업재개 허가</li> <li>○ '20.5.25일부터 전체 국내 항공노선 운항 허가</li> <li>○ '20.6.1일부터 호텔, 리조트, 휴양지 영업재개 허가</li> </ul>
미국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뉴욕 메트로폴리탄미술관, 현대미술관 재개관(8.29)</li> <li>○ 플로리다주 관광청, 국내관광 활성화 광고 'The Power of Florida Vacation' 캠페인 실시</li> <li>○ 미 CDC, 크루즈 항해금지 명령 해제, 조건적 크루즈 운항 허용(10.31)</li> <li>○ 미 CDC, 크루즈 터미널 및 선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시(2.2)</li> <li>○ 뉴욕시 식당 실내영업 재개(2.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대 수용인원의 25% 제한, 오후 10시까지 영업 가능</li> </ul> </li> <li>○ 뉴욕주 실내외 경기장·공연장 2.23일부터 제한적 입장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만 명 이상 수용 가능한 공연장·경기장은 최대 수용인원의 10%로 입장 제한</li> <li>- 경기, 공연 관람 72시간 내 검사 받은 코로나 음성 확인서 제출 필요</li> </ul> </li> </ul>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와이주, 일본 여행객 대상 지정 기관에서 발급된 음성확인서 제출 시 2주 격리 면제(11.6). 12.17일부터 방문객 의무격리 기간 14일에서 10일로 단축.</li> <li>○ 한국인 대상으로는 면제 검토 중(10.29)</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 국무부,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3단계에서 2단계 '주의 강화(Exercise Increased Caution)' 로 하향 조정(11.23)</li> <li>○ 1.26일부터 미국행 여행객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 코로나19 검사 음성 증명 필수</li> <li>○ 1.25일 남아공·영국·아일랜드 등 26개국 입국 금지 지속 발표</li> <li>○ 미국 입국자 대상 자기격리 의무화 계획 발표(1.21), 세부 지침 향후 발표 예정</li> </ul>
캐나다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어캐나다, 지역노선 수십개 운항 중지 발표</li> <li>○ 대서양 연안 4개 주로의 여행제한(업무, 의료, 생필품 조달 목적은 예외)</li> <li>○ 트래블버블(대서양 연안 4개 주) 방문시 4개주 이외 지역에서의 방문자는 2주 격리. 4개 주 간에는 자유 이동</li> </ul>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캐나다 국경 폐쇄(외국인 입국 규제) 유지(' 20.3.18~)</li> <li>○ 캐나다-미국 국경 잠재 폐쇄 2.21까지 연장(' 20.3.21~ ) *필수적 국경통과로 제한(유통 등)</li> <li>○ 모든 해외입국자(자국민 포함) 코로나-19 증상여부 관계없이 14일 의무 자기격리(' 20.4.1~)</li> <li>○ 입국 전 ArriveCAN 어플 등록 및 연락처자기격리 계획 제공 필수(' 20.11.21~)</li> <li>○ 모든 입국자(자국민 포함, 5세 이상) 대상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요구(' 21.1.7~)</li> <li>○ 모든 입국자에 입국 시 PCR 테스트 의무화, 정부 지정 호텔 의무격리(3일), 검사결과 음성 시 자택 격리, 양성 시 정부지정 시설서 격리 (1.29)</li> <li>○ 4개 공항으로 국제선 운항 제한(밴쿠버, 토론토, 몬트리올, 캘거리)</li> <li>○ <b>육로 입국자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도입(2.15~)</b></li> </ul>
호주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별로 지역 간 (Interstate) 여행 허가여부 상이, <b>수시변동</b></li> <li>- 2차 유행으로 인하여 방문금지 대상자를 거주지역별로 세부 지정</li> <li>- 빅토리아주 내 <b>코로나19 감염 확대</b>로 2.12부터 5일 간 <b>고강도 4단계 락다운 조치 시행</b></li> </ul>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뉴질랜드-쿡제도 간 일방향 여행안전지대(Travel Bubble) 21.1.21 개시</li> <li>- 쿡제도 주민만 뉴질랜드를 자기격리 없이 방문 가능</li> <li>○ 호주-뉴질랜드 간 쌍방향 여행안전지대(Travel Bubble) 21. 4월 경 시행 추진</li> <li>- 현재 뉴질랜드 주민만 호주를 자기격리 없이 방문 가능한 일방향 트래블 버블 시행 중( '20.10.16.부터)</li> <li>- <b>뉴질랜드 오uckland 신규 감염자 발생으로 2021.2.15.(월)부터 3일 간 임시 중단</b></li> <li>○ 해외에서 호주로 입국하는 여행자 대상 백신 증명서(vaccine certificate) 제출 의무화 제도 도입 예정</li> </ul>
독일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1일부터 2주간 통계에 의거 국가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여행경고, 불필요한 여행 자제 권고, 여행 주의 등 3단계로 발령</li> <li>* 한국은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 '불필요한 여행 자제 권고' 단계 해당</li> <li>○ 2021.1.1.부터 한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 모든 여행목적 체류 가능</li> </ul>
프랑스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적으로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나 일부 제한조치 유지</li> <li>○ 6.26부터 오를리공항(국내 및 유럽노선 거점) 운영 재개</li> <li>○ 국내관광 활성화에 집중</li> <li>- (마르세유) ~8.31까지 4개 박물관 무료입장</li> <li>- (노르망디) 국내관광 신규 캠페인(#올 여름은 노르망디에서) 추진</li> </ul>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 역내) 6.15일부터 국경 개방, 단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 개방</li> <li>○ (EU 역외) 7.1일부터 역외 국가별 상황에 따라 점진적 개방</li> </ul>
영국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ospitality 업계 일부(호텔, 레스토랑, 펍 등) 영업 재개(7.4~)</li> <li>○ 3차 봉쇄령으로 숙박업소 비즈니스 등 한정된 사유 외 판매 금지, 요식업 테이크아웃/배달 외 업계 영업 금지(1.6~)</li> </ul>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격리 면제 부여 대상 59개 지역 발표(7.10~) * 아웃바운드도 적용</li> <li>- 국가별 감염 발생상황에 따라 대상국가 변경 지속</li> <li>○ 모든 불필요한 해외여행 금지 권고에서 67개 지역 해제(7.4~)</li> <li>○ 국내외 여행 금지(3차 봉쇄령/1.6~)</li> <li>○ 자기격리 면제 부여 제도(travel corridor) 긴급 중지(1.18~)</li> </ul>
러시아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1일부터 의료면허 소지 치료목적 휴양소 영업 재개</li> <li>○ 7.1일 러시아 지역 간 국내관광 재개</li> <li>○ 12.15일까지 국내관광 활성화 캐시백 캠페인 시행</li> </ul>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1일부터 국제선 일부 운항 재개</li> </ul>



## 참고2

## 국가별 항공/페리 동향 [2.16 기준]

### <한-중국>

#### □ 항공 동향 \*민항국(民航局) 통지 의거, 3.29부터 항공사별 1개 노선 외, 전 노선 운항중단

\* 중국 민항국(民航局)의 《5·1정책(항공사별 1개 국가, 1개 노선, 1주 1편 운항) (3.29~) 지속 하, 《제5차 국제항공편 조정(외국항공사의 중국 노선 조건부 운항 재개 ;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제도) (6.8~)》정책 발표에 의거, 한-중 양국 국제선 확대 합의에 따라 항공노선 지속 증편 중(7월~)

구분	항공사	운항노선	운항일자
국적 항공사	대한항공(KE)	인천-선양	매주 금요일
		인천-광저우	매주 수요일
		인천-톈진	매주 화요일
		인천-다롄	매주 금요일
	아시아나항공(OZ)	인천-창춘	매주 화요일
		인천-난징	매주 일요일
		인천-청두	매주 목요일
		인천-하얼빈	매주 목요일
	제주항공(7C)	인천-웨이하이	매주 수요일
		인천-하얼빈	매주 수요일
	진에어(LJ)	제주-시안	매주 목·토요일
	에어부산(BX)	인천-닝보	매주 일요일
		부산-칭다오	매주 목요일
	티웨이항공(TW)	대구-엔지	매주 목요일
		인천-우한	매주 수요일
에어서울(RS)	인천-엔타이	매주 목요일	
	인천-칭다오	매주 화요일	
중국 항공사	중국국제항공(CA)	인천-베이징	매주 금요일*10.30부터 베이징으로 직접 입국
		인천-항저우	매주 화요일
		인천-다롄	매월 첫째주 목요일 (2~3월 월1회, 2월 4일 및 3월 4일)
	중국남방항공(CZ)	인천-선양	매주 일요일
		인천-광저우	매주 목요일
	중국동방항공(MU)	인천-상하이 푸둥	매주 금요일
		인천-우시	매주 목요일
	샤먼항공(MF)	인천-샤먼	매주 월·토요일
	산둥항공(SC)	인천-칭다오	매주 금요일
		인천-엔타이	매주 목요일
	선전항공(ZH)	인천-선전	매주 수요일
	칭다오항공(QW)	인천-칭다오	매주 토·일요일
춘추항공(9C)	인천-상하이 푸둥	매주 월요일	
	인천-닝보	매주 금요일	

#### □ 페리 동향

지역	노선	내용
톈진	(진천선무)인천-톈진	1.20부터 여객운송 중지
동북3성	(동방명주)인천-단둥	1.28부터 여객운송 중지(화물수송은 지속)
	(범영훼리)인천-잉커우	1.23~2.2 선박점검, 2.3부터 여객운송 중지(화물운송 재개)
산둥성	(대인훼리)인천-다롄항	1.28~2.17 선박 정기점검으로 휴항 / 2.20부터 여객 중지(화물 재개)
	모든 노선	승객 운송 중지, 화물 정상 운송
장쑤성	(연운항훼리)인천-렌윈강	여객 탑승 중지(2.1~)

## <한-홍콩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대한항공	감편운영	인천-홍콩 주 3회(수, 금, 일) 운항( '20.6.16-)
아시아나	감편운영	인천-홍콩 주 2회(화, 금) 운항( '20.3.24-)
티웨이	감편운영	인천-홍콩 주 1회(월) 운항( '20.12.14-)
	운항중단	대구-홍콩, 제주-홍콩(기 중단-추후 공지시)
이스타	운항중단	인천-홍콩( '20.2.26-), 제주-홍콩( '20.3.3-)
에어부산	운항중단	김해-홍콩( '20.2.16-)
제주에어	운항중단	인천-홍콩( '20.2.18-), 제주-홍콩( '20.2.12-)
진에어	운항중단	인천-홍콩(기 중단-추후 공지시)
에어서울	운항중단	인천-홍콩( '20.2.26-)
캐세이퍼시픽	운항중단	인천-홍콩( '20.3.1-)
캐세이드래곤	운항중단	제주-홍콩( '20.2.6-), 부산( '20.2.6-) * 캐세이드래곤 10.21 폐업
홍콩익스프레스	운항중단	인천-홍콩( '20.3.3-추후 공지시), 김해-홍콩( '20.3.3-추후 공지시)
홍콩에어라인	운항중단	인천-홍콩( '20.3.2-)

## <한-대만>

### □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대한항공	운항중지	타오위안-부산(2020.2.25~)
	운항	타오위안-인천(주2회, 2.12 운항취소)
아시아나	운항중지	카오슝-인천(2020.2.26~), 타이중-인천(2020.2.26~)
	운항	타오위안-인천(주2회, 2.13 운항취소, 3.1-3.27 주4회로 증편 예정)
진에어	운항중지	타오위안-인천(화물기만 주2회 운항중)
제주항공	운항중지	카오슝-인천(2020.2.26~), 카오슝-제주(2020.2.25~), 타오위안-대구(2020.2.26~), 타오위안-무안(2020.2.24~), 타오위안-부산(2020.2.26~), 타오위안-인천(2020.2.26~), 타오위안-제주(2020.2.26~), 타오위안-청주(2020.2.17~), 카오슝-부산(2020.6.1~)
에어부산	운항중지	카오슝-부산(2020.2.25~), 카오슝-인천(운항취소), 타오위안-대구(운항취소)* 타오위안-부산(2020.2.17~)
이스타	운항중지	카오슝-인천(2020.2.26~), 송산-김포(2020.2.27~), 타오위안-인천(2020.2.26~), 타오위안-제주(2020.2.17~), 타오위안-청주(2020.2.19~), 화롄-인천(2020.2.18~), 타오위안-부산(2020.2.16~), 화롄-부산(2020.2.18~) ※2020.9.4 이후 업데이트 없음
티웨이	운항중지	카오슝-부산(2020.2.21~), 카오슝-인천(2020.2.26~), 송산-김포(2020.2.27~), 타오위안-대구(2020.2.11~), 타이중-인천(2020.2.25~), 타이중-부산(2020.2.18~)
플라이강원	운항중지	타오위안-양양(2020.2.25~)
중화항공	운항중지	타오위안-부산(2020.2.28~), 카오슝-인천(2020.2.28~), 송산-김포(2020.2.26~)
	운항	타오위안-인천(주2회)
에바항공	운항중지	송산-김포(2020.2.26~), 타이중-인천(2020.2.27~), 카오슝-인천(2020.2.27~)
	운항	타오위안-인천(주2회)
유니항공	운항중지	타오위안-인천(2020.2.26~)
타이거항공	운항중지	타오위안-대구(2020.2.25~), 타오위안-부산(2020.2.27~), 타오위안-제주(2020.2.25~), 타오위안-인천(2020.2.25~)
캐세이퍼시픽	운항중지	타오위안-인천(2020.2.10~)
타이항공	운항중지	타오위안-인천(2020.3.5~)
스쿠트항공	운항	타오위안-인천(주 3회, ~ '21.3.27)

## □ 크루즈 동향

지역	노선	내용
지롱	(프린세스)지롱-일본-한국-지롱	'21년 방한노선 운항계획 없음
지롱	(코스타)지롱-한국-일본-지롱	'21년 방한노선 운항계획 없음

## <한-몽골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몽골항공	운항중단	인천-울란바토르(20.2.25~21.3.31), 부산-울란바토르(20.2.25~21.3.31)
대한항공	운항중단	인천-울란바토르(20.2.25~21.3.31)
에어부산	운항중단	부산-울란바토르(20.2.25~21.3.31)
아시아나	운항중단	인천-울란바토르(20.2.25~21.3.31)

## <한-일본>

### □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일본항공	운항중단	한일 전 노선 운항중단(~3.31)
대한항공	운항중단	하기 노선 외 운항중단(~3.27)
	감편운항	나리타-인천(~3.31 매일 1편 운항, 2.5 비운항) 간사이-인천(~2.28 주 2편(수,목) 운항, ~3.27 주 3편(수,목,토) 운항 3.6비운항) 나고야-인천(~3.27 주 1편(토)운항) 후쿠오카-인천(매주 목요일 운항/긴급사태선언 발령으로 3.4까지 운항취소)
아시아나항공	운항중단	하기 노선 외 운항중단(~3.27)
	감편운항	나리타-인천(~3.27 매일 1편 운항, 2.16,18,20,23,25,27 비운항) 간사이-인천(~3.27, 매일 1편 운항, 2.1~4,6,8,10~13,15~18,20,22~25,27 비운항) 나고야-인천(~3.27 주 1편(금) 운항, 2.5 비운항) 후쿠오카-인천(1.21~2.5 결항)
에어서울	운항중단	일본 전 노선 운항중단
티웨이항공	운항중단	하기 노선 외 운항중단(~3.27)
	감편운항	나리타-인천(~3.27, 주 1편(금) 운항) 간사이-인천(~2.20, 주 1편(목) 운항, 2.4,11 비운항) 후쿠오카-인천(3.27까지 운휴)
에어부산	운항중단	일본 전 노선 운항중단(~3.27)
진에어	운항중단	하기 노선 외 운항중단(~3.27)
	감편운항	나리타-인천(~3.27, 주 1편(수) 운항) 간사이-인천(~3.1, 주 1편(금) 운항, 2.19 비운항, 3.2~3.27 주 2편(월,금) 운항) 후쿠오카-인천(~3.27, 매주 화요일 운항)
피치항공	운항중단	일본 전 노선 운항중단(~3.27)
ZIPAIR	신규취항	나리타-인천 (10.16~, 주 2편(화, 금))
제주항공	운항중단	하기 노선 외 운항중단(~3.27)
	감편운항	나리타-인천 (~3.27 주 1편(토) 운항) 간사이-인천 (~3.27 주 2편(금, 일) 운항, 2.5,12,19 비운항)

## □ 페리 동향

지역	노선	내용
일본	(비틀) 후쿠오카-부산	당분간 운휴
일본	(카메리아) 후쿠오카-부산	당분간 운휴
일본	(칸푸페리) 시모노세키-부산	전 노선 운휴 (~2.28)
일본	(팬스타) 오사카-부산	당분간 운휴

## <한-태국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대한항공	부분운항	방콕-인천(KE654, 주 7회) 운항
아시아나항공	부분운항	방콕-인천(OZ742, 주 2회, 수/토) 운항
타이항공	부분운항	방콕-인천(TG656, 주 1회, 수) 운항
진에어 제주항공, 티웨이, 이스타항공, 타이항공, 에어아시아	운항중단	전 노선 현재 운항 중단 - 방콕-인천, 방콕-부산, 방콕-대구, 방콕-무안 등

## <한-싱가포르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대한항공	감편	싱가포르→인천 주 3회(월/수/금, ~2021.2)
아시아나	감편	싱가포르↔인천 주 3회(수/금/일, ~2021.3)
제주항공	운항중단	싱가포르↔부산 노선 비운항(~2021.3)
싱가포르항공	감편	싱가포르↔인천 주 7회(월~일, ~2021.3)

## <한-필리핀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대한항공	감편	마닐라→인천 (KE624 주7회) 1개 노선 운항
아시아나	감편	마닐라→인천(OZ70 주7회), 클락→인천(OZ707/708 주1회) 2개 노선운항
제주항공	감편	마닐라→인천(7C2305/2306 '20.10.22, 10.30, 2회 운항)
필리핀항공	감편	마닐라→인천(PR5468/PR5469, '20.10.14/ 10.14, 2회 운항)
세부퍼시픽	감편	마닐라→인천(5J194 주2회) 1개 노선 운항
에어부산	운항중단	전 한국-필리핀 노선 운항 중단(~미정)
티웨이항공	운항중단	전 한국-필리핀 노선 운항 중단(~미정)
이스타항공	운항중단	전 한국-필리핀 노선 운항 중단(~미정)
플라이강원	운항중단	전 한국-필리핀 노선 운항 중단(~미정)
진에어	운항중단	전 한국-필리핀 노선 운항 중단(~미정)
팬퍼시픽항공	운항중단	전 한국-필리핀 노선 운항 중단(~미정)
에어서울	운항중단	전 한국-필리핀 노선 운항 중단(~미정)
에어아시아	운항중단	전 한국-필리핀 노선 운항 중단(~미정)
델타항공	취항 연기	인천-마닐라(~미정)

## <한-베트남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대한항공	운항	인천-하노이 : 주 3회 운항 인천-호치민 : 주 7회 운항 * 한국행 운항편만 승객 탑승 가능
에어서울	운항중단	인천-베트남 운항중단(~미정)
아시아나	감편운항	인천-하노이 주 3회 운항 * 한국에서는 승객 없이 빈 항공기로 베트남에 입국하고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승객 및 화물 운송
에어부산	운항중단	인천-베트남 운항중단(~미정)
티웨이항공	운항중단	호치민-인천 노선 주 2회 운항 재개( '20.7.22~) * 한국행 운항편만 승객 탑승 가능
진에어	운항중단	인천-베트남 운항중단(~미정)
제주항공	운항중단	인천-베트남 운항중단(~미정)
밤부항공	운항	인천-하노이 : 12월부터 주 1회 운항 예정 * 한국행 운항편만 승객 탑승 가능
베트남항공	운항	인천-하노이 : 주 1회 운항 * 한국행 운항편만 승객 탑승 가능

## <한-말레이시아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대한항공	감편	인천-KL 주 2~3회 운항 * 항공화물과 말레이시아를 경유하여 한국에 입국하는 수요가 주를 이룸
에어아시아	운항중단	인천-KL 잠정 운항 중단
말레이시아항공	운항중단	인천-KL 잠정 운항 중단

## <한-인도네시아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가루다 인도네시아	감편	자카르타-인천 주 2회 운항(화, 목)
	운항중단	발리-인천 운항중단
대한항공	감편	자카르타-인천 주 3회 운항(화, 금, 일) 발리-인천 운항 중단( '20.7.1~' 21.2.28)
아시아나항공	감편	자카르타-인천 주 3회 운항(수, 금, 일)

## <한-인도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에어 인디아	운항중단	델리-인천노선 주 4편(화, 토) (~미정)
대한항공	운항중단	뭄바이-인천노선(주 3회) → 뭄바이 지점 폐쇄 델리-인천노선 (~미정)

## <한-네팔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대한항공	운항중단	인천-카트만두 운항중단(~2021.2)

## <한-UAE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대한항공	운항중단	인천-두바이( '20.3.5~)
에미레이트항공	부분재개	인천-두바이 주6회( '20.10월~)
에티하드항공	운항재개	인천-아부다비 주7회( '20.6.10~)

\* 한국은 저위험 국가로 분류되어 6.23일부터 목적 제한 없이 한국으로 여행(이동) 가능(단, 비자발급 필요)

\* 단, 예약 상황에 따라(예약률이 저조할 경우) 항공편 취소 빈번

## <한-터키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터키항공	운항재개	이스탄불-인천 주 3회 운항
대한항공	운항중단	이스탄불-인천(~'21.10월)
아시아나	운항중단	이스탄불-인천(~'21.3월)

\* 단, 양국 간 비자 면제 협정 중단 상태로 별도 방문비자 발급 필요

## <한-카자흐스탄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에어아스타나	감편운항	알마티-인천 주 2회(월/금)→1회(월) 운항 ( '20.7.8~)
아시아나	증편	알마티-인천(격주1회→주1회(목)) * '20.12.3부터

## <한-우즈베키스탄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우즈베키스탄항공	운항중단	타쉬켄트-인천 (주7회) * '20.3.16~
아시아나	운항중단	타쉬켄트-인천 (주3회) * '20.3.16~
대한항공	운항중단	타쉬켄트-인천 (주3회) * '20.3.16~

## <한-스리랑카, 몰디브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대한항공	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뉴델리지사 관할구역인 몰디브-스리랑카 구간 대한항공 운항이 잠정 중단</li> <li>- 몰디브(말레)-스리랑카(콜롬보) 운항 중단(~2.16)</li> <li>- 스리랑카-한국(인천) 운항 중단(~2.17)</li> </ul>

## <한-영국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대한항공	운항중단	런던-인천( '20.12.23~' 21.2.25)
아시아나	운항중단	런던-인천( '20.12.23~' 21.2.25)
영국항공	운항중단	런던-인천( '20.4.11~2021년 하반기)



### <한-이탈리아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대한항공	운항중단	인천-로마(~2.28) 인천-밀라노(~2.28)
아시아나항공	운항중단	인천-로마(~3.27) 인천-베니스(~3.27)

### <한-핀란드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핀에어	감편	헬싱키-인천( '20.7.3~ '21.3.27 / 주3회(화,금,토)) * 11월(주7회) 점차 증편 예정
	기타	헬싱키-부산 신규취항 연기( '20.3.30→ '21년 6월 예정)

### <한-프랑스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대한항공	감편	인천-파리(주7회→주3회, ~2.28)
아시아나항공	운항중단	인천-파리(~3.27)
에어프랑스	감편	인천-파리(주7회→주3회, ~2.28)

### <한-스페인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대한항공	운항중단	인천-마드리드(~2.28) 인천-바르셀로나(~2.28)
아시아나항공	운항중단	인천-바르셀로나(~3.27)

### <한-독일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루프트한자	운휴	뮌헨-인천( '20.12.1~2.28) 운휴 프랑크푸르트-인천 운항중단 → ( '20.12.1~2.28) 주3회 감편운행 연장
아시아나항공	감편	프랑크푸르트-인천( '20.10.12~2.28) 주3회, 감편운행 연장
대한항공	감편	프랑크푸르트-인천( '20.7.1~2.28) 주 2회, 감편운행 연장

### <한-핀란드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핀에어	감편	헬싱키-인천( '20.7.3~ '20.10.31/주3회(화,금,토)) * 11월(주7회) 점차 증편 예정
	기타	헬싱키-부산 신규취항 연기( '20.3.30→ '21년)

## <한-폴란드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LOT	운항재개	바르샤바-인천( '20.7.3~) 주 4회(월,수,금,일)

## <한-미국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대한항공	정상운행 (1)	인천-애틀랜타( 주7회, '20.9.1~)
	감편 (8)	인천-샌프란시스코( 주5회, ~2021.3.31) 인천-뉴욕( 주7회, ~2021.3.31) 인천-시카고( 주3회, ~2021.3.31) 인천-워싱턴( 주4회, ~2021.3.31) 인천-LA( 주11회, ~2021.3.31) 인천-시애틀( 주3회, ~2021.3.31) 인천-댈러스( 주3회, ~2021.3.31) 인천-보스턴( 주3회, 12.1~2021.3.31)
	운항중단 (2)	인천-라스베가스(~2021.3.31) 인천-호놀룰루(~2021.3.31)
아시아나	감편 (4)	인천-뉴욕( 주7회, ~2021.3.31.) (1.14,23 / 2.2,6,9,13,16,19,23,27 비운항) 인천-LA( 주9회, ~2021.3.31.) (2.6, 24 비운항, 3.6 비운항) 인천-샌프란시스코( 주4회, ~2021.3.31.) (3.3 비운항) 인천-시애틀( 주3회, ~2021.3.31.) (1.22, 2.5, 12, 19, 26, 3.5 비운항)
	운항중단 (1)	인천-뉴욕(~2021.2.28., 0Z224) (~2021.3.1., 0Z223) 인천-호놀룰루(~2021.3.27.)
델타	정상운행 (1)	인천-디트로이트( 주7회 '20.6.1~)
	감편 (2)	인천-시애틀( 주7회→주4회, '20.7.1~) 인천-애틀랜타( 주7회→주5회, '20.8.1~)
	운항중단 (1)	인천-미네아폴리스( '20.2.29 - '20.8.31)
유나이티드	감편 (1)	인천-샌프란시스코( 주7회→주3회, '20.7.1~)
아메리칸	정상운행 (1)	인천-댈러스( 주7회, '20.6.4~ )
하와이안	감편 (1)	인천-호놀룰루( '20.11.25~3.31 주5회→주1회)

\* 대한항공 : 미국노선 전편 발열 체크 의무화 및 추가 기내 방역 강화

## <한-캐나다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에어캐나다	감편	인천-밴쿠버(AC064) : 주 5회 운항
	운항중단	인천-토론토(AC061) : '20.12월 재개 예정이었으나 무기한 중단
대한항공	감편	인천-밴쿠버(KE071/072) : '20.6.1부터 주 4회 운항 인천-토론토(KE073/074) : '20.6.2부터 주 3회 운항

## <한-러시아>

### □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대한항공	운항중단	블라디보스톡-인천( '20.3.1~) 모스크바-인천( '20.3.5~)
	운항재개	모스크바-인천( '20.10.9~) * 12.4일부터 매주 금요일 1회 운항(기존 격주 1회에서 주 1회로 증편)
오로라항공	운항재개	모스크바-인천( '20.9.16~) : 주 7회 운항 하바롭스크-인천( '20.9.17~) : 주 7회 운항 유즈노사할린스크-인천( '20.9.16~) : 주 7회 운항 * 8.1일부터 온라인 예약을 받고 있으나 현재 연말까지 운항 일정 취소
S7항공	운항중단	노보시비르스크-인천( '20.9.2~) : 주 2회 운항(수, 토) 블라디보스톡-인천( '20.3.1~) 이르쿠츠크-인천( '20.3.1~)
야쿠티아항공	운항중단	야쿠츠크-인천( '20.3.1~)
제주항공	운항중단	블라디보스톡-인천( '20.3.1~)
에어부산		블라디보스톡-부산( '20.2.26~)
아에로플로트	운항재개	모스크바-인천( '20.10.1~) * 12.3일부터 매주 목요일 1회 운항(기존 격주 1회에서 주 1회로 증편)

### □ 페리 동향

지역	노선	내용
블라디보스톡	동해-블라디보스톡	동계 정기휴항 기간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무기한 연장 (당초 휴항 예정 기간 : 2019년12월 ~ 2020년 3월초)

## <한-호주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젯스타	운항중단	골드코스트-인천
대한항공	부정기운항	브리즈번-인천
		시드니-인천 2021년 2월 중 1회, 3월 중 2회
아시아나항공	부정기운항	시드니-인천 2021년 2월 중 3회, 3월 중 4회

## <한-뉴질랜드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에어뉴질랜드	부정기운항	오클랜드-인천 2021년 1월~6월, 월 1회
대한항공	부정기운항	오클랜드-인천 2021년 1월~6월, 월 2회

**참고3**

**한국 여행 금지·자제 관련 조치 (해외지사 동향보고, 2.16)**

□ **총 28개국**

No	구분	국가	관리 조치
1	중국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럽 일부국가·미국·이란·한국 등 코로나19 고위험 15개국 대상 자국민 여행자제 경보 발령(중국 외교부, '20.3.17)</li> <li>▶ 중국민 해외여행 자제 경보 발령(중국 외교부, '20.4.21)</li> </ul>
2	비중국 중화권	홍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적색경고(여행계획조정, 불필요한 여행자제) 지역으로 격상(홍콩 보안국, '20.2.25)</li> <li>▶ 해외 모든 지역 적색경고(여행계획조정, 불필요한 여행자제) 발령(홍콩 보안국, '20.3.17)</li> <li>▶ 해외지역 코로나 위험도에 따라 3개 등급으로 분류('21.1.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위험지역(브라질, 남아공, 영국, 아일랜드)</li> <li>- 위험지역(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20개국)</li> <li>- 주의지역(그 외 모든 해외지역)</li> </ul> </li> </ul>
3		대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4단계(방문부적합, 최대한 빠른 철수) 발령(대만 외교부, '20.3.19)</li> <li>▶ 해외 모든 지역 여행 적색경보 발령(대만 외교부, '20.3.21)</li> </ul>
4		마카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코로나19 고위험지역으로 지정(마카오 위생국, 2.23)</li> <li>*고위험지역 방문객 대상 별도 지정장소에서 검역 강화</li> <li>▶ 한국 2단계 여행경보(불필요한 여행자제) 발령(마카오 여행위기관리국, 2.25)</li> <li>▶ 해외 모든지역 2단계(불필요한 여행자제) 여행경보 발령(마카오 여행위기관리국, 3.19)</li> </ul>
5	일본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류자격 보유자에 한해 일본 재입국 허용(9.1)</li> <li>* (PCR)출국전 검사증, (대사관 발급)재입국확인서 지참 조건</li> <li>▶ 중장기 체류 대상 외국인, 일본 신규 입국 허용(10.1~)</li> <li>* 출국 전 PCR 검사 음성, 입국 후 14일 자가격리 등 조치 확약이 가능한 기업, 단체 대상, 입국자 수 한정 조건</li> <li>▶ 양국간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시행(10.8)</li> <li>* 단기출장자용 '비즈니스 트랙' 과 장기체류자용 '레지던스 트랙' 으로 운영, 비즈니스 트랙의 경우 PCR검사 음성확인증 제시 등 조건충족시 14일 격리조치 면제</li> <li>▶ 대한민국 전역 감염증위험정보 레벨3에서 레벨2(불요불급의 방문)로 격하(10.30)</li> <li>▶ 영국발 변종 유입 우려로 전세계 대상 신규 외국인 입국 재금지</li> <li>▶ 비즈니스트랙 포함 외국인 신규 입국 전면 금지책 재개(1.14~2.7)</li> <li>▶ 비즈니스트랙 포함 외국인 신규 입국 전면 금지책 연장(2.8~3.7)</li> </ul>
6	아시아 중동	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구, 경북 방문 자제 권고(주한태국대사관, '20.2.20)</li> <li>▶ 태국 정부 공무원 대상 한국을 포함한 주요 위험국가 공무 여행 금지 발표(태국 내무부, '20.3.1)</li> </ul>
7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해외여행 자제(싱가포르 보건부, '20.3.18)</li> <li>▶ 한국·독일·말레이시아 대상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는 Fast lane 제도 3개월 중단 발표('21.1.30)</li> <li>* 신속통로제도와는 별도로 한국 입국 시 중요사업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li> </ul>
8		말레이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3.18-3.31 이동 제한 명령으로 해외여행 금지(말레이시아 총리실, '20. 3.16)</li> <li>▶ 20.8.31까지 이동 제한 명령 5차 연장(말레이시아 총리실, '20.6.7)</li> <li>▶ 국경봉쇄 지속 실시(싱가포르 국경에서 400명/주 한도 내에서 사전허가에 의한 출퇴근만 허용)</li> <li>▶ 21.2.18일까지 말레이시아 전지역 이동금지령(말레이시아 총리실, 21.2.7)</li> </ul>
9		베트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행자제 국가로 한국 지정(베트남 총리, '20.2.21)</li> </ul>
10		인도네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싱가포르, 일본, 한국(대구·경북지역)에 대한 여행 연기·자제 및 방문금지 등 권고(인니 외교부, '20.2.24)</li> <li>▶ 전세계 지역에 대한 비필수적인 해외여행 제한 및 해외여행중인 자국민 조기 귀국 등 권고(인니 외교부, '20.3.17)</li> </ul>
11		필리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3.17~4.13 루손섬 전체 봉쇄·격리 조치 시행(필리핀 대통령, '20.3.16)</li> <li>▶ 해외노동자, 외국인 제외 자국민 해외여행 금지(필리핀 외무부, '20.3.18)</li> </ul>
12	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이탈리아, 이란 여행 자제 권고(인도 보건·가족복지부, '20.2.26)</li> <li>▶ 대구, 경북 방문 자제 권고(주한인도대사관 '20.2.24)</li> </ul>	

13		터키	▶ 한국, 이탈리아, 이라크-터키 출도착 항공 전면 중단(터키 보건부, 20.2.29) ▶ 해외여행 자제 권고(터키 보건부, 20.3.11)
14		UAE	▶ 한국 '저위험국가' 로 분류, 목적제한 없이 여행 가능( 20.6.23) ▶ 별도 발표 시까지 파키스탄, 인도 등 20개국 여행 금지 조치( 21.2.4)
15		카자흐스탄	▶ 한국 포함 감염 발생 27개국으로 해외여행 자제 권고(카자흐스탄 보건부, 20.2.6)
16		사우디아라비아	▶ 한국으로의 여행 제한(사우디아라비아 외교부, 20.3.9)
17		오만	▶ 자국민 해외 출국 금지(오만 최고위원회, 20.3.18)
18		이란	▶ 외무부 한국 여행 자제 권고(이란 외무부, 20.2.29)
19		쿠웨이트	▶ 2.7일부터 2주간 비시민권자에 대한 입국 중단, 국민 대상 비필수적 해외여행 금지 권고( 21.2.7)
20		이스라엘	▶ 한국-이스라엘 항공 운항 중지. 한국여행 자제 권고(이스라엘 보건부, 20.2.23)
21		몽골	▶ 코로나19 발생국가 여행 자제 경고(환경관광부, 20.1.31) ▶ 한국 코로나19 고위험지역(방문중지)으로 지정(국가비상대책위원회, 20.3.2)
22	미주	미국	▶ 전 세계 모든 국가 대상 4단계(여행금지) 조치 해제(미국 국무부, 8.6) ▶ 한국은 3단계(여행재고)로 조정(미국 국무부, 8.6) ▶ 한국 여행경보 2단계 '주의 강화(Exercise Increased Caution)' 로 하향 조정(미 국무부, 11.23)
23		캐나다	▶ 한국 위기단계(1단계:Take normal security precautions) 캐나다 정부 공식 여행권고 3단계(Avoid non-essential travel) * 거의 모든 나라에 3단계 적용
24	구주	독일	▶ 2021.1.1.부터 모든 여행 목적의 한국인 입국 허용 ▶ 모든 불필요한 해외 여행 경고(20.12.16) * 코로나19 위험지역 대상 신호등제 도입을 통해 여행 위험, 경고, 주의 등 표시
25		프랑스	▶ 한국 여행등급 1단계(정상)에서 3단계(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행자제 권고)로 격상(프랑스 외무부, 2.25)
26		영국	▶ 모든 불필요한 해외여행 금지 권고 (영국 외무부, 3.17) ▶ 해외여행중인 영국국민 즉시 귀국 권고 (영국 외무부, 3.23) ▶ 여행금지 권고 해제(7.4)
27		러시아	▶ 한국 여행자제 권고(러시아소비자보호감독청, 관광청, 외교부, 2.26) ▶ 한국 관광상품 판매 중단 권고(러시아관광청, 2.27) ▶ 모스크바 제외 항공운항 제한(러시아교통부, 3.1) ▶ 국제항공노선 운항 전면중단(러시아연방항공청, 3.27) ▶ 국제항공노선 일부 운항 재개(8.1) ▶ 방한항공노선(모스크바-인천) 운항 재개(9.27)
28		벨기에	▶ 꼭 필요하지 않은 한국 여행은 하지 말 것을 권고(벨기에 외무부, 3.2)
29	대양주	호주	▶ 한국의 모든 지역에 대해 여행금지(4단계) 경보 발령(호주 외교통상부, 4.1) ▶ 시민권자, 영주권자 대상 예외적 경우 제외 모든 해외 출국금지조치 발효(호주 외교통상부, 3.25)

**참고4**

**한국의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16)**

No	시행일	국가	관리 조치
1	'20. 2.4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베이성 발급여권 입국제한</li> <li>▶ 후베이성 관할 공관 발급 기존사증 효력 잠정중지</li> <li>▶ 14일내 후베이성 방문 모든 외국인 입국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베이성 관련 제한사항 8.10일부 해제</li> </ul> </li> <li>▶ 제주 무사증 일시 정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인 및 중국발 외국인에 대한 무사증 전면 중지</li> </ul> </li> <li>▶ 특별입국절차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상태질문서 및 특별검역신고서 작성</li> <li>- 입국장 검역과정에서 발열 검사 시행</li> <li>- 국내 체류 주소와 휴대전화 연락처 확인</li> <li>-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후 2주간 앱을 통해 자신의 상태 의무보고</li> </ul> </li> </ul>
		전세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입국 자동심사 이용 중지</li> </ul>
2	2.12	홍콩·마카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입국절차 시행</li> </ul>
3	3.9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국민에 대한 사증면제 잠정 중지</li> <li>▶ 일본 주재 모든 공관 발급 일본 국민에 대한 기존사증 효력 잠정 정지</li> <li>▶ 신규 비자발급 심사강화</li> <li>▶ 특별입국절차 시행</li> </ul>
4	3.12	이탈리아·이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입국절차 시행</li> </ul>
5	3.15	프랑스·독일· 스페인·영국 ·네덜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입국절차 시행</li> </ul>
6	3.19	전세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입국절차 전세계 확대 시행</li> </ul>
7	3.22	유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럽발 입국객 전원 대상 별도 지정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증상자 : 검역소 격리시설</li> <li>* 무증상자 외국인 : 지정된 임시생활시설</li> <li>* 무증상 내국인 : 자가격리, 입국 후 3일 이내 관할보건소에서 검사</li> </ul> </li> </ul>
8	3.27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발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 입국객 대상 입국조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증상자 :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li> <li>* 무증상자 : 14일간 자가격리, 증상 발현 시 진단검사 실시</li> </ul> </li> <li>▶ 미국발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객 대상 입국조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증상자 :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li> <li>* 무증상자 : 지정된 임시생활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li> <li>* 음성판정 시 능동감시 대상으로 지정 및 한국 내 체류 보장</li> </ul> </li> </ul>
9	4.1	전세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국가 입국자(내·외국인)는 14일 자가격리</li> <li>* 단기체류 외국인도 입국 후 14일간 시설격리(국익, 공익 목적 예외적 사유 제외)</li> </ul>
10	4.13	아·태 18개국 미주 23개국 유럽 34개국 중동 9개국 아프리카 6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지역 151곳 중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했거나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 국가·지역 90곳에 대한 사증면제 조치를 잠정 정지</li> <li>▶ 4.5일까지 발급된 단기체류 목적의 단수·복수사증 효력 잠정 정지. 이미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당시 부여받은 체류 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 가능</li> <li>▶ 단기취업(C-4), 취업·투자 등을 위한 장기사증은 효력정지 대상에서 제외</li> </ul>
11	4.13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발 입국자 자가격리 후 3일 이내 모두 진단검사 실시</li> </ul>
12	7.13	방역강화 대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역강화 대상 4개 국가에서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 PCR 음성확인서 의무제출 실시</li> <li>* 해당국가 발 정기항공편 좌석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li> </ul>
13	7.20	방역강화 대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방역강화 대상 4개 국가에 7.20일부터 2개 국가 추가</li> </ul>



14	7.31	재입국 외국인 관리 필요 대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역관리상 취약한 유형의 체류자격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입국심사단계에서 거주지별 형태, 건물주와의 통화를 통해 실제 거주 여부 파악, 입국 심사시 특별검역신고서에 기재한 주소지가 자가격리에 부적합할 경우(관내 고시원, 모텔 등) 시설격리</li> <li>▶ 난민 신청자 중 출국 후 재입국 예정인 1000여명 대상 난민심사 진행단계, 체류기간 만료일, 난민 신청사유 등을 전수조사하여 재입국 시 신속하게 심사 결정할 예정</li> </ul>
15	7.31	특별 입국대상자	▶ 자가격리 주소 및 연락처 기재 시 자가격리 장소 소유주 또는 관리인의 연락처 기재 의무화
16	8.3	방역강화 대상국 및 러시아 출항 선원	▶ 출항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의무제출 실시
17	8.10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베이성 발급여권 입국제한 해지</li> <li>▶ 후베이성 관광 발급 사증제한 해지</li> <li>▶ 14일내 후베이성 방문 모든 외국인 입국제한 해지</li> </ul>
18	8.17	전세계	▶ 8.17일 0시부터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가 한국정부의 방역조치 위반 시 코로나19 치료비 전액 부담
19	8.24	전세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24일 0시부터 상대국가의 한국인 대상 코로나19 치료비 지원 정도 및 여부에 따라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 해외유입 외국인 국적별 치료비 일부 또는 전액 부담 조치</li> <li>- 126개국 중 58개국이 한국인 환자 대상 일부지원, 66개국이 전액지원 중(12월 기준)</li> </ul>
20	9.30~ 10.4	전세계	▶ 추석연휴 특별방역기간 중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3일 이내 진단검사, 14일간 격리실시 등 특별입국절차와 해외입국자 별도 운송 계속 실시
21	12.23~ 21.1.7	영국, 남아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역강화 : 입국시, 격리해제 전 검사,</li> <li>▶ 영국발 항공편 입국 한시적 중단('12.23~' 21.1.21)</li> <li>▶ 입국심사 강화 및 발열 기준 기존 37.5도에서 37.3도로 조정</li> </ul>
22	'21. 1.4	전세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이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모든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공항입국자 1.8일부터, 항만입국자 1.15일부터)</li> <li>▶ 해외입국자 시설 및 자가격리 관리 강화 및 격리해제 전 검사 실시</li> </ul>
23	21.1.4	영국, 남아공	▶ 내외국인 PCR 음성확인서 제출, 외교·공무·인도적 사유 이외의 신규 비자 발급 중단, 격리면제서 발급 한시적 중단
24	21.1.12	영국, 남아공	▶ 영국·남아공 입국자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및 음성 확인까지 격리
25	21.1.12	전세계	▶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3일 이내 및 격리해제 전 검사 실시
26	21.1.18	전세계	▶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진단검사 시기를 1일 이내(당초 3일)로 단축하여 변이 바이러스 감시·관리 강화
27	21.2.8	아프리카 전역	▶ 모든 아프리카 입국자(외국인→내·외국인)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
28	21.2.11	전세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해외 입국자 PCR 검사 3회 실시</li> <li>- 입국전(음성확인서) → 입국직후(시설 또는 자가격리 후 1일 이내) → 격리해제 전</li> <li>▶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 특별관리 및 격리 강화</li> </ul>
29	21.2.11	변이바이러스 위험국	▶ 변이바이러스 점유율을 고려하여 방역 강화국 지정 및 주기적 조정. 항공편 제한 등 방역 조치 강화. 격리면제제도 원칙적 중단

※ ('20.4.13일 시행) 사증면제 잠정 정지 국가·지역(90곳)

구분	사증면제협정국가	무사증입국 국가·지역
아·태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나우루,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키리바시, 호주, 솔로몬제도, 투발루, 피지, 홍콩, 대만, 마카오, 브루나이, 사모아, 통가
미주	바하마, 안티가바부다, 아이티,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코스타리카, 페루, 과테말라, 그레나다, 도미니카공화국,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수리남,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온두라스, 캐나다, 파라과이
유럽	불가리아, 이탈리아,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리투아니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체코, 카자흐스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몬테네그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사이프러스,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중동	모로코,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튀니지	바레인, 오만, 사우디, 카타르, 쿠웨이트
아프리카	레소토	모리셔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세이셸, 에스와티니

참고5

국가별 코로나19 백신 관련 현황 (2.16 기준)

지역	국가명	코로나19 백신 관련 현황																			
중화권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활용 외교를 위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여 백신 지원 진행 중</li> <li>○ 자국 제약업체 시노팜 백신 국민 접종 중</li> <li>○ 자국 제약업체 시노백 백신 일반승인(2.6)</li> <li>○ 코로나 19 백신 접종 횟수 4,052만회 완료(2.9)</li> </ul>																			
	홍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콩정부 총 2,250만 회 분(홍콩인구 3배수)의 백신 확보</li> <li>- 중국 시노백, 미국 화이자,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와 각 750만 회 분량 백신 구매 계약완료</li> <li>○ 2월 춘절 전후 접종 시행 예정이었으나, 중국 시노백 승인 지연 등으로 백신 접종 시기 지연</li> <li>○ 정부 백신접종 시행계획</li> <li>- 의료업계 근무자, 60세 이상 노령층 등 300만 명 대상 우선 접종 시행</li> <li>- 홍콩거주민 중 희망자에 한하여 무료 접종 추진</li> <li>○ 코로나 백신 관련 원스톱 웹사이트(<a href="https://www.covidvaccine.gov.hk/en/">https://www.covidvaccine.gov.hk/en/</a>) 운영</li> </ul>																			
	대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DC(질병관리센터), COVAX 등을 통해 1,500만 명분을 기 확보한 것으로 발표</li> <li>- 백신 안정성, 효과성, 접종시기 등에 신중한 입장으로 이르면 내년 3월 의료진 등 감염 노출 위험이 높은 그룹을 대상으로 460만 명분 우선 접종 개시 예상</li> </ul>																			
일본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백신 개발 현황</li> <li>- 인제스(DNA 백신) : 500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개시</li> <li>- 시오노기제약(유전자 재조합 백신) : 1-2차 임상시험 개시(12월)</li> <li>- 타케다약품공업(유전자 재조합 백신) : 미 노바백스의 제조기술 이전</li> <li>- KM바이오로지스 : 내년 1월 1·2차 임상시험 동시실시, 2023년 실용화 목표</li> <li>- 다이이치산쿄(mRNA 백신) : 내년 3월 임상시험개시 목표</li> <li>○ 코로나19 백신 확보 현황</li> <li>- 미국 화이자 1억 2천만 회분(6천만 명분)</li> <li>- 미국 모더나 5천만 회분</li> <li>-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1억 2천만 회분</li> <li>○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현황</li> <li>- 토아미화학(아비간) : 제조판매승인 신청(10.16)에 대해 승인보류 결정(12.21)</li> <li>○ 정부 상정 코로나19 백신 접종 순서 발표(12.23)</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접종순위</th> <th>대상자</th> <th>접종예상시기</th> </tr> </thead> <tbody> <tr> <td>1</td> <td>의료종사자 선형접종</td> <td>희망자 약 1만명</td> <td>2월 3주차-3월상순</td> </tr> <tr> <td>2</td> <td>의료종사자 우선접종</td> <td>코로나19 환자와 빈번하게 접촉하는 의료종사자, 구급대원, 보건소직원 등 300만명</td> <td>3월 중</td> </tr> <tr> <td>3</td> <td>고령자 우선접종</td> <td>65세 이상 3천만~4천만명</td> <td>3월 하순~4월상순</td> </tr> <tr> <td>4</td> <td>기타</td> <td>기저질환자, 고령자 시설 직원 등을 우선하면서 일반인 포함</td> <td>4월 이후(미정)</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이자 백신, 후생노동성이 승인할 경우 16세 이상 접종으로 검토 중(1.10)</li> <li>○ 일본정부, 백신 접종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특별사이트와 공식 트위터 계정 개설(1.22)</li> <li>○ 백신접종 체제 및 운영테스트를 위한 시뮬레이션 실시 예정(1.27)</li> <li>- 가능한 한 2월 3주차부터 의료 종사자 대상 접종 개시 예정</li> </ul>	접종순위	대상자	접종예상시기	1	의료종사자 선형접종	희망자 약 1만명	2월 3주차-3월상순	2	의료종사자 우선접종	코로나19 환자와 빈번하게 접촉하는 의료종사자, 구급대원, 보건소직원 등 300만명	3월 중	3	고령자 우선접종	65세 이상 3천만~4천만명	3월 하순~4월상순	4	기타	기저질환자, 고령자 시설 직원 등을 우선하면서 일반인 포함	4월 이후(미정)
		접종순위	대상자	접종예상시기																	
1	의료종사자 선형접종	희망자 약 1만명	2월 3주차-3월상순																		
2	의료종사자 우선접종	코로나19 환자와 빈번하게 접촉하는 의료종사자, 구급대원, 보건소직원 등 300만명	3월 중																		
3	고령자 우선접종	65세 이상 3천만~4천만명	3월 하순~4월상순																		
4	기타	기저질환자, 고령자 시설 직원 등을 우선하면서 일반인 포함	4월 이후(미정)																		
이중동	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부, 옥스퍼드-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백신 생산에 대한 기술을 이전 받아 코로나19 백신 생산 시작. 연간 2억 도스 생산, 5월부터 공급 가능</li> <li>○ 2월 보건공무원, 자원봉사자, 고위험군 대상 200만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아스트라제네카, 시노백) 무상접종 개시</li> <li>* 보건 공무원, 자원봉사자 및 고위험군 대상 200만 회분의 코로나19 백신 무상접종 2월부터 개시(현재 태국이 승인한 코로나19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사, 시노백 백신 2가지임)</li> <li>○ '21년, 인구 50%인 3,300만명 백신 접종 계획(1.21)</li> <li>* 올해 안으로 인구의 50%인 3,300만명 백신접종 계획, 1분기 시노백 백신 10%, 6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0%, 코백스 퍼실리티로부터 20%를 공급받을 예정</li> <li>○ 코로나19 백신 2.14일 첫 접종 준비, '머프롬' 앱 등록 필수(1.25)</li> <li>* 2월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5만 도스 도착, 의료진 우선 접종, 2.12일까지 머프롬 앱을 이용하여 사전 등록 필요</li> <li>○ 공중보건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운송 문제로 공급 및 접종계획 지연('21.2.9)</li> </ul>																			

지역	국가명	코로나19 백신 관련 현황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더나(Moderna) 제약사, 당국에 코로나19용 백신 사용 승인 요청. 12월중 도착 예정</li> <li>○ 백신은 싱가포르인과 장기거주자는 무료로 접종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분은 '20.12월 말부터 접종 예정, 2021년 말까지 모든 사람을 대상 목표</li> </ul> </li> <li>* 접종 우선순위는 의료 종사자, 노인 및 취약 계층</li> <li>○ 정부,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사용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년 3분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양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시민과 장기 거주자에게 무료로 제공될 것</li> </ul> </li> <li>○ 총리, 국민 무료 접종을 위한 백신 확보를 위해 약 1조백억원 준비 발표</li> <li>○ 보건부, '20.12.30일부터 의료 종사자 대상 백신 접종 시작. '21년 2월 70세 이상의 일반 국민을 대상 접종 계획</li> <li>○ 국가질병관리센터 간호사 등 의료종사자 30명 대상 '20.12.30일 아시아 최초 백신 접종 시작</li> <li>○ '21.1.27일부터 70세 이상 고령자 대상 백신 접종 개시</li> <li>○ '21.2.5일 기준, 약 17.5천명 백신 1차 접종 완료. 모더나 백신 접종 승인 및 3월 접종 예상</li> <li>○ '21.2.12일 기준 약 25만명의 국민 백신접종 완료, 주목할 만한 부작용은 없음</li> </ul>
	말레이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초 1월 중순 실시 예정이었던 630만명 분의 화이자백신 접종계획 일부 지연, 2월초 1백만명 1차 접종 후 4-5월 경 620만명분의 화이자 백신 추가 도입</li> <li>○ 화이자백신 630만명분 확보 및 접종개시 계획 지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분기 1백만, 2분기 1.7백만, 3분기 6백만, 4분기 4백만 도즈 등 약 1300만 도즈 접종 예정, 일반국민은 3분기부터 접종 가능</li> </ul> </li> <li>○ 보건부, 러시아·중국산 백신 1,830만 도즈 공급 계약 체결(1.26)</li> <li>○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 재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월 의료진 등 50만명 1차 접종, 4~8월 고령자 고위험군 등 940만명 2차 접종, 5월~'22년 2월 18세 이상 성인 대상 3차 접종. 전국 600개 접종센터에 백신 보관소 설치 및 접종</li> </ul> </li> <li>○ '21.2.26일부터 전국 600여개의 접종센터에서 백신 접종 시작</li> </ul>
	베트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노젠(Nanogen) 제약사, 자체 개발 코로나19 백신 나노코백스 임상시험 착수</li> <li>* 임상시험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경우 21년 5월 출시 계획</li> </ul>
	인도네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네시아 2021년 백신접종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진·군경·법조인·공공서비스 종사자('21.1~4), 취약계층 일반 국민 등('21.4~'22.3)</li> </ul> </li> <li>○ 자카르타주, 백신 접종 거부시 벌금 5백만 루피아 부과</li> <li>○ 조코 위도도 대통령, '21.1.13일 인도네시아 최초로 백신 접종</li> <li>○ 보건당국, 현재까지 인도네시아 백신 4억회 확보, 1월까지 18백만회 시노백 백신 도착</li> <li>○ 코로나-19 백신 접종 가이드라인 및 대상자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21.1월-4월) : 의료/보건 종사자 130만명 및 공무원 174만명 대상 접종</li> <li>- 2차 : 18~59세 연령층</li> </ul> </li> <li>○ 국내산 Merah Putih 백신. 3월경에 Biofarma 총해 임상시험 진행 예정</li> <li>○ '21.3월부터 군인 경찰 공공서비스종사자 백신접종 시작, 1~1.5개월 소요 예상, 의료인력 150만명 2월말 접종(1월말 기준 50% 접종 완료), 4월부터 일반 국민 접종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월 말 기준 인도네시아 663백만회 백신 확보, 2월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도입</li> </ul> </li> <li>○ 식품의약품안전청, 중국 시노백 백신 60세 이상 접종 승인</li> </ul>
	필리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지방정부·제약회사 간 3차 협약 승인, 7개 제약회사와 계약 예정, 올해 5~7천만명분 접종 예상</li> <li>○ 정부, 1억 48백만 회분의 코로나 19백신 확보, 5천만명 접종 추진</li> <li>○ '21.2월중 5만회 분량의 시노백 코로나19 백신 수도권 의료종사자 대상 접종 추진</li> <li>○ 중국 시노백 백신 '21.2.20일 필리핀 도착 예정, 중국 외부장관 50만회분 백신 기증 약속</li> <li>○ '21.2월 안에 최소 1백만명의 의료종사자 등 일선 근무자에게 백신 접종 예정</li> <li>○ 메트로 마닐라 파식 시, 지방정부 최초로 백신접종 계획 승인. 매주 33,000명 이상 접종 계획</li> <li>○ '20년 11월 계약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700만회분, 5월 도착 예정</li> <li>○ 화이자 백신 약 11.7천회분, 메트로 마닐라 내 4개 정부병원 의료진 56,000명 우선 접종</li> <li>○ '21.2.23일 중국 시노백 백신 60만회 분량 도착 예정, 필리핀 군을 위해 중국 정부가 10만회 분 후원</li> </ul>
	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 당국, 자국 백신을 포함하여 총 16억회 분의 코로나19 백신 주문, 현재 1억회 분 확보(1인당 2회분 분량 접종 계획)</li> <li>○ 보건 당국, 초기 접종 순위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년 6월까지 → 의료/보건 부분 종사자 2천만명 접종</li> <li>- 내년 8월까지 → 50대 이상 연령층, 50대 이하 합병증 환자 2억6천만명 대상 접종</li> </ul> </li> <li>○ 코로나-19 백신접종 가이드라인 발표, 1차 접종 대상자 약 3억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접종대상자에 의료진 1천 명, 최전선 직원 1천 명, 50세 이상 인구 및 50세 미만 동반질환 보유자 2억 7천여 명 포함</li> </ul> </li> </ul>

지역	국가명	코로나19 백신 관련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신접종 시행을 위한 인력 확보와 물류 및 IT 시스템 구축 관련 지침 작성</li> <li>○ '21.1.13일부터 인도 내 백신 접종 시작 예정, 올해 8월까지 3억명 접종 계획</li> <li>○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인도 최초 긴급사용 승인, '21.1.16일부터 백신 접종 시작, 8월까지 3억명 접종 계획</li> </ul>
	UA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AE 보건 당국, 시노팜(중국 국영 제약사) 코로나19 백신 공식 등록('20.12.9)</li> <li>- 7월부터 UAE에서 시노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임상 3상 시험 실시, 9월 긴급사용 승인</li> <li>- UAE 거주자 대상 백신 무료 접종 실시('20.12.12~)</li> <li>* 임상 3상 시험 참여자 : UAE 내 120여개 국적 총 3만 1천여 명</li> <li>* 긴급사용 대상자 : 의료진, 공항 근무자, 교사 등</li> <li>* 임상 3상 시험 중간 결과 코로나19 감염에 대해 86% 면역 효과</li> <li>○ UAE 아부다비에서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V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 시험 시작('20.12.7)</li> <li>- 참여자격 : 아부다비 거주자로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이며 18세 이상 건강한 자</li> <li>- 선정방법 및 인원 : 온라인 신청자 대상 당국의 심사를 통해 총 5백명 선정</li> <li>- 임상 3상 시험 방법 : 20일 간격으로 2회분의 백신 접종 후 방문, 원격 상담을 통한 정기적 모니터링</li> <li>○ 사우디아라비아, 거주자 대상 코로나19 백신 단계별 접종시작('20.12.15)</li> <li>- (1단계) 65세 이상 국민/거주자, 감염에 취약한 인력(의료진 등), 만성 질환자 등</li> <li>- (2단계) 50세 이상 국민/거주자, 보건의로 일반 종사자 등</li> <li>- (3단계) 백신 접종을 원하는 모든 국민/거주자</li> <li>○ 화이자-바이오엔테크 코로나19 백신 긴급 등록(12.22) 및 국민/거주자 대상 무료 접종 시작(12.23)</li> <li>○ 두바이 보건 당국(DHA), '21.1.3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금지 대상자* 발표</li> <li>- 18세 미만, 임신부/수유중인 자, 면역 결핍증 환자, 의약품에 알레르기가 있는 자 등</li> <li>○ UAE 거주민 중 약 25만명 코로나19 백신 2회차 접종 완료('21.1.10)</li> <li>○ UAE 내 코로나19 백신 누적 접종량 약 179만회 ('21.1.16일 기준)</li> <li>○ UAE 내 백신 접종자('21.1.30일 기준) : 총 3,114,162명(인구 100명당 31.49명)</li> <li>○ 2021년 1분기, 코로나19 백신 전 거주민의 50% 이상 접종 계획</li> <li>○ 러시아 스푸트니크 V 코로나19 백신 긴급사용 승인 및 공식 등록('21.1.21)</li> <li>○ 두바이 보건 당국(DHA),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긴급 등록 및 18~60세 두바이 국민 거주자 대상 무료 접종 시작('21.2.8)</li> </ul>
	터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코로나19 백신 개발 및 확보현황, 접종 계획 발표('20.12.14)</li> <li>- 터키 당국은 현재 16개 제약회사가 백신 개발 중이며, 이중 가장 빠른 것은 1개 제약회사가 임상 1상 완료 후 2상 진행 예정('20.12.25)</li> <li>- 터키 국민 2,500만 명 총 2회 접종 가능한 약 5,000만 회분의 백신 확보 완료(시노백)</li> <li>- 12월 25일 첫 접종시작, 2~3주간 집중적으로 백신 접종 예정</li> <li>- 접종 대상 5개 그룹으로 분할하며, 의료종사자, 65세 이상부터 접종 시작</li> <li>- 모든 접종비는 정부 부담으로 무료 배포</li> <li>○ 시노백 백신 긴급사용 승인 완료('21.1.13), 의료계 종사자 등 접종그룹 우선순위에 의거 접종 시작('21.1.14)</li> <li>○ '21.1.26일 기준 약 1,400만명 백신 접종 완료</li> <li>○ 의료계 종사자 대상 1회차 백신 접종 완료('21.1.14), 2회차 접종 시작('21.2.15~)</li> <li>- 1차 백신접종 시작 후 현재까지 전 국민의 약 4% 접종 완료</li> </ul>
	카자흐스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부, 러시아 직접투자펀드와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 등록, 생산 및 도입 가속화 협정 체결('20.12.4)</li> <li>○ 총리, 대통령에게 카자흐스탄이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1차, 2차 임상시험이 성공적이었다고 보고('20.12.4)</li> <li>- 12월 중 200만 도스(1회 접종분) 생산 및 2021. 3월말까지 3차 임상 완료 예정</li> <li>○ 내년 2월부터 의료진, 경찰, 교사 등 대상 희망자에게 러시아 개발 Sputnik-V 백신 접종 예정('20.12.21)</li> <li>○ 미국 화이자사 백신 구매 계획 발표('20.12.28)</li> <li>○ 보건부, 미국 자체 개발 화이자 백신 2021년 하반기 공급 예정('21.1.3)</li> <li>○ 보건부, 러시아 자체 개발 Sputnik V 백신 등록('21.2.15), 2월 말 9만 회분 이상의 Sputnik V 백신 공급 예정</li> </ul>
	이스라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1위 국가, 백신증명서 발급 계획 발표</li> <li>- 백신접종 시작(20.12.19) 이후 1.24일 기준 현재 인구 100명당 41.8회 백신 투여 완료</li> </ul>

지역	국가명	코로나19 백신 관련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령층과 고위험군에 속한 그룹 대상 우선 접종 시작, 접종 후순위에 해당하는 그룹도 본인 희망시 접종 가능, 정상적 학사 일정 운영과 대학입학 시험 일정으로 부모 동의하에 16~18세 그룹도 접종 시작</li> <li>○ 백신 2회 접종자 대상으로 백신 증명서 'Green Booklet' 발급 계획</li> </ul>
	몽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몽골이 COVAX의 코로나19 예방 접종 대상 국가 리스트에 포함</li> <li>- 65세 이상 고령자, 감염 노출 위험이 높은 의료진, 만성질환자 등이 우선 접종 대상</li> <li>○ 코로나19 백신 관련하여 유럽 연합국들과 협력 예정</li> <li>○ 코로나19 백신 3월 도입 예정</li> <li>○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백신, 몽골 의약품 리스트 공식 등록 완료</li> <li>○ 인도에서 3.9백만 달러 분량의 인도산 Covaxin 백신 몽골에 지원</li> <li>○ 인도에서 1백만 회분의 Covishield 백신 지원, 15만 회분은 2월 안에 발송 예정</li> <li>○ COVAX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상반기에 188,940회분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공급 예정</li> <li>○ '21.3.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도입 및 몽골 국민의 60% 접종 계획</li> </ul>
미주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델타항공, 코로나19 백신 글로벌 운송 체계 구축 완료</li> <li>- 애틀랜타, 디트로이트, 로스앤젤레스, 뉴욕, 시애틀 내 위치한 대규모 물류창고 및 냉각시설과 의약품 수송관련 인증을 받은 세계 45곳 공항과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전세계 각지에 코로나19 백신을 운송하기 위한 준비 완료</li> <li>- KLM Martinair Cargo, Virgin Atlantic Cargo와 협력</li> <li>○ FDA, 12.18 모더나 백신 긴급 사용 승인</li> <li>- 모더나 백신, 3만 명 대상 임상시험에서 2차 접종 시 94.1 예방 효과 기록</li> <li>○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보고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원인 연구</li> <li>○ 미 백신 100만회 이상 접종 완료, 일반인 백신 접종은 내년 여름 예정</li> <li>○ 시우스웨스트 항공, 전 직원 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li> <li>- 백신은 연방정부 지원, 접종 비용은 직원들의 건강보험 종류에 따라 항공사 부담 예정</li> <li>○ 바이든 대통령, 코로나 백신 2억 회분 추가 구매 발표(1.27)</li> <li>- 화이자, 모더나 백신 각각 1억회 분량 구매 발표.</li> <li>- 이미 확보한 백신 포함 총 3억회 분 보유. 미국 전 국민 접종 가능한 수량이며, 올 가을 초까지 접종 완료 계획</li> <li>○ 미국인 백신 1차 접종률 14% (46백만명, 2.12 기준)</li> <li>○ 캘리포니아주, 3.15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 확대</li> <li>- 암, 만성 신장·폐질환 등 기저질환 및 다운증후군 등 장애인 접종 가능(16-64세)</li> </ul>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부, 세계 두 번째 화이자 백신 캐나다 내 사용 승인(20.12.9)</li> <li>- 연내 24만9천회 분 도착 예정, 도착 1-2일내 14개 지역서 무료접종 시작</li> <li>- 21년 9월까지 캐나다국민 전국민 접종 완료 계획(유학생 등 외국인 포함)</li> <li>○ 백신(화이자)접종 개시(20.12.14)</li> <li>○ 보건부, 모더나(Moderna) 백신 승인(20.12.23), 연내 168천회분 도착</li> <li>○ 화이자 백신제조시설 확장계획으로 당분간 캐나다로의 백신 공급 지연 예정</li> <li>○ 연내 2000만 회분 화이자 백신 추가 구매 동의(총 8천만 회분)</li> <li>○ 화이자 백신공급 지연으로 주정부 등에서 백신공급 계획 재검토</li> <li>* 백신 공급부족 대책으로 1, 2차 접종 시 화이자, 모더나 백신 간 교차 사용에 대해서도 검토 중</li> <li>○ ('21.1.30) 캐나다 백신접종 833,414회분, 1회분 기준 접종자 전 인구의 2.19%</li> <li>○ 보건부, 아스트라제네카(2월 둘째주), 존슨앤존슨(2월말), 노바백스(4월이전) 백신 승인 예정</li> <li>○ 백신수급 사태를 계기로 노바백스 백신 캐나다 국내 생산하기로 동사와 MOU체결 발표</li> <li>* 단, 빨리도 가을부터 생산 가능할 것으로 전망</li> <li>○ ('21.2.14 기준) 캐나다 백신접종 968,538회분, 1회분 기준 접종자 전 인구의 2.55%</li> </ul>
대양주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당국, 코로나19 접종 2021년 2월 말부터 계획, 10월 내 전 국민 접종 완료 목표</li> <li>- 호주 정부는 백신 접종대상 그룹을 1a, 1b, 2a, 2b, 3의 총 5개 단계로 구성하여 점진적으로 접종 확대. 최선에서 일하는 격리 호텔, 공항, 의료진, 요양원 근로자 1백 4십만 명이 1a에 해당되며 화이자 백신 투여 예정</li> <li>- 화이자 등 4개 백신 제조사로부터 총 134.8백만개의 백신 구입 완료</li> <li>- EU의 유럽 내 제작되는 백신의 해외 수출 통제로 인해 호주에서 수입 예정이던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계획의 차질 우려에도 불구하고, 보건부 장관 2월 말부터 화이자 백신 주당 8만개 배포 계획 문제없다고 재확인</li> <li>- 병원뿐만 아니라 일반 약국 약 2천개 이상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투약 가능하도록 예산 2억 달러 투입 예정</li> <li>- 병원 및 약국을 통해 접종 예약가능하며, 대부분 운전 면허증만 제시하면 접종 가능</li> </ul>



지역	국가명	코로나19 백신 관련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종처에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인쇄가능형태로 이메일로 발송, 웹/앱 확인 가능</li> <li>- 호주 정부 면역 등록(Australian Immunisation Register) 시스템을 통해 백신 예방접종을 처방 받은 사람들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누적</li> </ul>
구주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 최초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 접종 시작(12.8/V-Day)</li> <li>- 첫 접종자(90세 할머니) 시작으로 의료진, 80세 이상 고령자, 요양원 근무자 등 우선 순위 접종자 대상으로 50개 시범병원에서 접종 시작</li> <li>○ 세계 최초 파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 접종 이후 알레르기 반응 보어</li> <li>- 백신접종 하루 만에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 직원 2명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자, 영국 NHS는 과거 약품, 음식, 백신에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사전 예방차원에서 당분간 백신접종 중단 권고</li> <li>○ 임신부는 백신 접종에서 제외</li> <li>- 해롭다는 증거는 없으나 임신부대상 임상실험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임</li> <li>○ 최고 의료책임자, 새로운 변종이 백신이나 치료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현재 없다고 발표</li> <li>○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 두 번째 접종 완료 7일 경과 후 면역력 생성</li> <li>○ 아스트라제네카·옥스퍼드대 백신 세계 최초 승인(12.30) 및 '21.1.4일 접종 시작</li> <li>○ 1.15일부터 일일 수십만명 이상으로 백신접종 확대 계획 발표</li> <li>○ 모더나 백신 사용 승인(1.8)</li> <li>○ 230만명 백신 접종 완료(1.11), 가을까지 모든 성인 접종 완료 계획</li> <li>○ 모더나 백신 영국발 및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 있는 것으로 발표</li> <li>○ 영국 성인의 약 1/4 백신 접종 완료(1,530만명/1차 접종자 기준, 2.15 기준)</li> </ul>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당국 산하 백신위원회, 백신 우선 접종 권고 초안 마련 및 관계 기관에 배포</li> <li>- 첫 번째 그룹 : 80세 이상 고령자, 양로원 혹은 요양원 거주자, 응급실 등 감염 노출 위험이 높은 의료진, 위험 그룹과 접촉이 긴밀한 의사, 간호사, 간병인 등이 우선 접종 대상</li> <li>* 우선 접종 대상 규모 : 860만 명</li> <li>* 우선 접종 대상 중 65세 미만은 연령에 제한된 백신(예: 아스트라제네카)으로 접종 규정 (제 2조 2항, 3조 2항, 4조 3항)</li> <li>- 두 번째 그룹: 76-80세 고령자, 치매환자 돌봄시설 거주자 및 의료진, 돌봄시설 의료진, 간병인 등 (접종규모 약 6백만 명) 및 암환자, 중증 당뇨 환자, 만성 신장질환 환자 등과 같은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li> <li>- 세 번째 그룹 : 71세-75세 고령자, 망명 및 노숙자 보호소 거주자, 의료 시설, 특히 병원 인프라 유지를 위한 관련 직위 (예 : 클리닉 및 관행의 청소 직원 또는 병원 기술 직원) 및 공중 보건 서비스에 고용 된 직원에 노출 위험이 중간 정도인 직원(접종 규모 약 550만 명)</li> <li>- 네 번째 그룹 : 66세-70세 고령자, 중등도 질병환자 접촉자, 교사 및 교육자, 계절근로자, 육가공 근로자, 택배업 및 유통업자 등, (접종규모 약 690만명)</li> <li>- 다섯 번째 그룹 : 60세-65세 고령자, 소매업, 주 및 연방 정부 주요직원, 중요 인프라 직원(소방대, 군대, 경찰, 대중 교통 또는 폐기물 관리) (접종규모 약 9백만명)</li> <li>○ 개봉한 백신앰플의 유효기간 만료 전 개별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와 무관하게 유동적으로 접종을 시행하는 것을 허용(제1조 3항)</li> <li>○ 2.14(일) 기준 코로나19 백신 접종건수 2,736,109건 기록</li> </ul>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27일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 시작, 고령층 등 취약집단부터 우선 접종</li> <li>- (1월~) 요양시설 거주 고령자, 직원 등 100만 명 대상 우선 제공</li> <li>- (2월~)코로나19 취약 만성질환 환자, 의료진을 중심으로 1,400만 명 대상 제공</li> <li>- (4월~6월) 전 국민 대상 확대</li> <li>* 의무 접종이 아닌 선택사항이며, 프랑스 인구수보다 많은 1억 명 가용 백신 2억 회분 확보(인당 2회 접종)</li> <li>* 무료 제공으로, 사회보장예산 약 1조 9천억 원 책정</li> <li>○ 모더나 백신 1.11일 프랑스에 입고</li> <li>○ 백신물량 부족으로 2.2일부터 1차 접종 일시 중단, 3월 첫째 주로 연기</li> <li>○ 2.6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간병인 대상 우선 접종 시작, 3월 말까지 누적 백신 접종 인원 800만 명 목표</li> <li>○ 3월부터 모더나 백신 하청 생산, 공급 물량 확대 청신호</li> <li>*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은 4월, 큐어백 백신은 5월부터 하청 생산 예정</li> </ul>
	러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시아 코로나19 백신 개발 현황</li> <li>- 등록백신 : 2종(Sputnik V, EpiVacCorona)</li> </ul>



지역	국가명	코로나19 백신 관련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putnik V 생산계획국가 : 헝가리, 인도, 한국, 브라질, 중국,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li> <li>○ 러시아 개발 코로나19 백신(Sputnik V) 접종 개시(12.4~)</li> <li>- 우선접종대상 : 의료진, 교사, 공공서비스 분야 근로자 / 18-60세</li> <li>- 백신생산량 : 232,000 도즈(~2020.12), 6백만 도즈 / 월(2021.1~)</li> <li>- 기타 : Sputnik V 접종 유효기간 2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결합 접종 실험</li> <li>* 통상적인 백신 개발 절차와 달리 3상에 앞서 공식승인 사전진행</li> <li>○ 러시아 개발 코로나19 백신(Sputnik V) 접종자 150만명 돌파</li> <li>○ 연해주 지역,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 의료종사자·65세 이상 고령자 우선 접종 예정(1.12)</li> <li>○ 모스크바, 1.13일부터 호텔 및 여행사 종사자 대상 백신 접종 시작 예정</li> <li>○ 러시아 백신 '에피박코로나' 60세 이상 고령 대상 3단계 임상시험 완료(접종효과 지속기간 1년) 및 3월부터 대량 생산 시작</li> </ul>
	스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로제네카 등 제약사와 백신 계약 체결. 화이자 백신 승인에 따라 90세 이상 시민부터 접종 개시</li> </ul>